

소설 일반론 재정립을 위한 작품의 실상 점검*

조동일**

연구과제와 자료

이 연구는 세계소설 일반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소설 일반론이 마련되어야 세계문학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 세계문학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소설일반론으로 행세하는 이론이 허타하지만 모두 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광범위한 작품론을 근거로 삼지 않고 이론 전개를 앞세우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소설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있다. 그런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소설론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기존의 소설론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세계소설에 널리 해당되는 일반론은 아니다.¹⁾

기존의 소설론은 이론적인 타당성도 문제이지만, 취급 범위에서 더욱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논자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작품, 다루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고 해도 한정된 시기에 이루어진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문명권의 소설에 관해서만 고찰한 것을 소설일반론이라고 한다. 그런 예증이라도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그 재단의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은 전국 규모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요구하지만, 전국 규모의 학술지는 모두 논문 분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논문처럼 긴 논문은 발표할 수 있는 곳에 발표해야 한다.

** 본과 교수

1) 이 논문에 이어서 동아시아 및 유럽 각국의 소설론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비판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이라는 두 권 분량의 저서가 될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들었을 따름이고, 서술한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럽문명권 근대소설에서 이룩한 규범에 관한 일률적인 해설을 세계 도처에서 수입해다 팔고 있다. 그런 소설론에 대해 이론 차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

소설일반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개념론에서 작품론으로, 이론 선행의 연구에서 사실 선행의 연구로 방향을 돌려야,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거 있는 해답을 얻어, 세계소설 일반론이라고 할 것을 이룩할 수 있다. 작품에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고찰하는 사례를 편벽되지 않게 선택해야 한다. 유럽문명권의 근대소설은 소설이 한 가지 예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소설을 널리 살피는 열린 안목을 가져야 한다. 세계소설의 판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살펴 대표성을 가진 작품을 택해야 한다.

세계소설에는 (가) 자기 문명권 안에서 자생한 일차적 생성물과 (나) 다른 문명권의 충격을 받고 생겨난 이차적 생성물이 있다. (가)에는 (가1) 17-19세기 동아시아소설이 있고, (가2) 17-19세기 유럽소설이 있다. 유럽문명권소설의 충격을 받고 생겨난 다른 문명권의 20세기 소설인 (나)는,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나1) 민족어를 사용한 소설, (나2) 유럽의 언어를 사용한 소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 불어 등 유럽의 언어를 사용한 제3세계소설도 적지 않아, (나2)의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위의 네 부류 소설의 대표적인 예증을 하나씩 들어, 집중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부터 할 일이다. 예증은 네 부류의 특징을 잘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성격이 되도록 다양해야 한다. 작가가 알려져 있고, 작가를 서로 비교해서 고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풍부한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가1)의 예는 한국 金萬重(1637-1692)이 1689년경에 쓴 『사씨남정기』로 한다. 사대부 남성인 작가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여성들에게 주로 읽힌 국문본과 남성을 독자로 한 한문본의 두 가지 형태로 유통된 이 작품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동아시아소설이 성장하고 정착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서 소설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소설공정론의 논거를 제 공했다. 최선본이라고 밝혀진 필사본을 자료로 삼는다.

(가2)의 예는 프랑스 작가 스탠달(Stendhal, 1783~1842)의 『적과 흑』(*Le rouge et le noir*)으로 한다. “1830년의 연대기”라고 하면서 그 해에 출간된 이 작품은 19세기 전반기에 근대사회 형성기의 계급모순을 심도 있게 다루어 유럽근대소설의 전형을 창조했다고 평가된다. 문제의식과 흥미 양면을 다 잘 갖춘 것도 예증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다른 문명권에서 유럽의 근대소설을 받아들일 때 이 작품을 특히 중요시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원문을 자료로 이용하면서, 번역본 둘을 참고한다.

(나1)의 예는 인도 작가 프렘찬드(Premchand, 1880~1936)의 『암소 바치기』(*Godaan*)로 한다. 1936년에 힌디어로 쓴 이 소설은 인도근대소설의 대표작이며, 식민지하의 고난을 전통사회와의 모순과 함께 문제삼은 제3세계소설의 좋은 본보기이다. 현실을 그리는 것과 개조하는 것, 빙곤의 해결과 의식의 각성, 그 양면의 관계를 심각하게 다룬 점이 높이 평가된다. 힌디어 원문을 읽을 수 없어, 영역본을 이용한다.

(나2)의 예는 켄야 작가 은구기(Ngugi, 1938-)의 『울지 마라, 아이야』(*Weep Not, Child*)로 한다. 켄야 독립전쟁의 진행과정을 다룬 이 작품은 1964년에 출판되어, 20세기 후반에 제3세계문학이 민족해방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식민지하의 고난을 문제삼는 데 그치지 않고 항거의 투쟁에 동참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면서 차분한 어조로 작품을 형상화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원문을 자료로 이용하면서, 번역본을 참고한다.

네 작품을 정밀하게 읽고 자세하게 따지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목을 길게 인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원문을 바로 인용해야 마땅하지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문에는 번역을 내놓고, 주에다가 원문을 적는다. 번역은 기존의 번역이 있는 경우에도 원문과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했다.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이론적인 논의는 곁들이지 않는다. 작품을 하나씩 고찰해 서로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 공통된 특징을 추출해야 비로소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견지한다. 비교논의에서도 사실의 증거를 넘어서서 논의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기존연구를 참고할 때에도 작품 이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씨남정기』

『사씨남정기』²⁾ 작가 金萬重(1637-1692)은 대대로 벼슬을 하는 光山金氏의 명문에서 태어나 최상의 지식을 쌓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관원이며, 한문학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지배적인 이념에 대해서 회의하고 비판하는 생각을 가졌다. 국문으로 소설을 써서, 여성의 생활을 문제삼고, 여성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특이한 일을 했다.

아버지가 병자호란 때 순절해 유복자로 태어나서 외가에서 자랐다. 어머니 尹氏는 아들 교육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으며, 아들은 평생토록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다. 29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순조롭게 관직에 나아가 승진을 거듭하다가 대체학의 지위에 올랐다. 집권세력인 西人の 일원이어서 영학을 누렸다. 그러다가 숙종이 남인의 지지를 받고 仁顯王后를 내치고 張嬉嬪을 왕후로 맞이한 데 대한 서인의 반대에 가담해 宣川으로, 다시 南海로 귀양을 갔다. 서인의 재기를 보지 못하고 남해 귀양처에서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김만중은 당시의 사대부가 모두 그렇듯이 주자학에 중심을 둔 유학을 익혀 가치관의 근본을 다지고, 한문학의 고전을 이어받아 품격 높은 시문을 창작했다. 문집인 『西浦集』을 보면 그 양면이 잘 나타나 있다. 관직생활을 하면서 쓴 跛에서는 주자학적 명분론을 사리를 판단하고 주견을 개진하는 근거로 삼았다. 서두에 내놓은 수많은 詩는 고전과 깊이 연결된 격조를 갖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인정의 소중함을 찾고 있어, 사람됨의 폭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 작품은 작가가 국문으로 썼으므로 제목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씨”를 “謝氏”라고 해서, 『謝氏南征記』라고 하는 것은 한역본에 근거를 둔 표기이다.

그러면서 김만중은 주자학이나 고전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여러 학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관심을 가졌다. “九流의 여러 方技, 算數나 律呂, 象緯며 輿地 등속에 이르기까지, 보기만 하면 그 구멍과 매듭을 훠뚫어 알아, 정밀할 때에는 부처와老子의 경계가 같고 다른 바 있고 없음에 출입하고, 조잡할 때에는 碑官小說 따위로 하늘을 말하고 용을 새겨 역력하게 빼지 않은 바가 없다”³⁾고³⁾ 하는 박학이 『西浦漫筆』에 더 잘 나타나 있다. 거기서는 유학과 불교, 曆法과 시문, 중국과 서양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심을 보이면서 주자학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냈다.

그 당시에 소설은 “민간전승을 모으는 관원이 수집한 대단치 않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碑官小說”이라고 일컬어졌다.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通俗小說”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김만중은 『西浦漫筆』에서 『三國志』의 경우를 예로 들어 소설은 역사서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데 앞선다고 했다.⁴⁾ 「中庸序」에서 “人心聽令於道心”이라고 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긴장을 풀고 즐겁게 놀 때의 人心이 道心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⁵⁾ 그 말은 道心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글과는 별도로 人心을 보여주는 소설을 써도 잘못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만중은 『九雲夢』과 『사씨남정기』 두 가지 소설을 썼다. 『西浦年譜』 51세 때(1687)의 기사에서 평안도 宣川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시를 짓고, “또한 글을 지어 부쳐서 소일거리를 삼게 했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일체의 부귀영화는 몽환이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뜻을 넓히고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⁶⁾고⁶⁾ 한 데 『구운몽』의 창

3) 金昌翕, 「西浦集序」, 『西浦集』(서울 : 통문관, 1971), 13면. 원문은 “至九流諸方技 算數律呂 象緯輿地之屬 覺卽洞解其竅節 而精而竺聃同異之際 出有入無 粗而碑官小說之叢談 天蠶龍靡不歷歷貫穿”이다.

4) 홍인표 역, 『西浦漫筆』(서울 : 일지사, 1987), 385면.

5) 같은 책, 129~130면.

6) 김병국 외 역, 『西浦年譜』(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번역 227면, 원문 330면. 원문은 “又著書寄送 俾作消遣之資 其旨 以爲一切富貴榮華 都是幻夢 亦所以廣其意而慰其悲也”이다.

작시기와 창작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씨남정기』는 언제 지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치고 장희빈을 왕후로 맞이한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지었다는 속설을 따르면, 창작시기가 그 사건이 일어난 숙종 15년인 1689년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⁷⁾

숙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씨남정기』를 썼다면, 한문을 사용해야 마땅하고, 교씨의 모습이 장희빈과 많이 다르지 않게 조심해야 했을 것이다. 남인의 무리는 동청과 같다고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씨남정기』가 만약 교씨를 통해서 장희빈을, 동청을 통해서 남인을 비난한 작품이었다면, 숙종이 읽기 전에 먼저 서인을 물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남인이 나서서 귀양가 있는 김만중을 그대로 두지 않고 명예훼손의 죄를 물었을 것이다. 숙종이 『사씨남정기』를 읽고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상상이다.

김만중이 이 작품을 쓴 직접적인 동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작품의 의미는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다. 작품 자체가 지금도 지니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 궁극적인 창작동기이다. 그것은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는 전형을 통해서 구현한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이고, 한 시대의 총체적인 모습이기도 하므로, 자기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숙종의 경우도 거기 해당될 수 있다.

김만중은 소설을 써서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보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읽도록 했으며, 소설을 가지고 수입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작의 의도와 작품의 운명은 서로 달랐다. 이 작품 또한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필사본으로 유통되던 작품이 貴冊으로 이용되고, 처음에는 목판본으로, 나중에는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⁸⁾ 그렇게 해서 저자가 아닌 다른 여러

7)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의도가 숙종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데 있었다는 말은 金春灝(1670-1717)의 『北軒集』이나 李養吾(1737-1811)의 『礮溪集』에서 그 작품에 관해 논할 때에는 보이지 않고,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藁』에서 처음 나타났다. 김춘택은 그 작품을 한역했으며, 이규경은 작자가 김만중이 아니고 김춘택이라고 했다.

8) 이금희, 『사씨남정기연구』(서울 : 반도출판사, 199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씨남정기』의 목판본은 3종, 활자본은 8종이 나왔다.

사람이 수입을 얻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필사본이든 목판본이든 활자본이든 어느 쪽에도 작자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은 판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운몽』은 어머니의 시름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며, 『사씨남정기』에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여성이기에 겪어야 할 수난을 다루었다. 『구운몽』은 현실 안팎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삶의 조건을 초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취급했다면, 『사씨남정기』는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을 찾았다. 『구운몽』은 우호적인 인물들 사이에서 생겨난 차질을 통해 전개되는 반면에 『사씨남정기』는 적대적인 인물들 사이에서 음모가 횡행하고, 갈등이 첨예화되는 혐악한 세계를 보여준다. 김만중은 그처럼 서로 다른 두 작품을 쓴 것은 소설을 다양화하는 데 적극 기여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 두 작품 모두 소설 긍정론이 이룩되는 데 기여했다. 소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구운몽』은 당대의 명사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하는 효심 때문에 쓴 격조 높은 작품이라는 이유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사씨남정기』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고 했다. 김만중의 종손이 되는 金春澤은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 작품은 다른 소설과 달리 “敦民彝 補世教”(백성이 행할 도리를 돈독하게 하고, 세상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독자를 감동시켜 天道를 받드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평가했다.⁹⁾ 그 뒤에도 소설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소설 긍정론의 논거로 삼았다.

작품 서두에서 명나라 가정연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나, 시간과 장소를 빌려왔을 따름이고 그 시대 중국사회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작자 당대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다룬다고 하면, 구상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고, 국왕의 무능이나 정치의 잘못을 문제삼는 등의 특정한 사항 처리에 관해 지탄을 받을 염려도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를 옮긴 것이다.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해

9) 유타일, 『한국 고소설비평자료집성』(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4), 100면.

야 했다.

유연수라는 인물이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되고서, 사씨 집안의 현숙한 딸 정옥을 아내로 맞이했어도 자식이 없자, 사씨의 천거를 받아들여 교씨를 첨으로 맞이했다. 세 사람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교씨가 사씨를 모해해서 파괴되었다. 교씨는 그 집안에 새로 들어와 書土 일을 맡은 동청과 정을 통하고 악행을 함께 피해, 냉진이라는 인물을 하수인으로 해서 사씨가 부정한 짓을 한 것처럼 꾸며, 유연수가 집안 어른들에게 고해 사씨를 내치게 했다.

승상의 지위에 있는 엄승이라는 권신이 천자를 속이고 국권을 농락해 조정에도 위기가 생겼다. 유연수는 엄승상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동청이 밀고해, 벼슬을 잃고 귀양가는 신세가 되었다. 사씨는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말을 따른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고 묘혜라는 여승에게 구출되었다. 시어머니가 사씨에게 다시 현몽해 지시한 바에 따라서 묘혜는 죽을 고비에 이른 유연수도 구해, 부부가 상봉하게 되었다. 교씨가 죽이려고 했던 아들도 찾아냈다.

동청은 국권을 농락하고 있던 엄승상에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원이 되어 떠나고, 교씨가 동행해서 부부가 되었다. 냉진도 동청을 따라갔다가 교씨와 정을 통했다. 그러다가 천자가 엄승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내쫓자, 냉진은 동청의 잘못을 고해 별반게 하고 교씨와 함께 살기 위해 재물을 신고 길을 다가가, 집꾼이 재물을 가지고 도망쳐서 자기도 망했다. 그러자 형세가 역전되어, 유연수는 다시 벼슬을 하고, 교씨를 찾아내 죄를 묻고 처형했다. 그 뒤에는 유연수가 사씨와 더불어 부귀를 누리면서 잘 살았다. 사씨는 『내훈』과 『열녀전』을 지어 행실을 가르쳤다고 했다. 칙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를 받는 법이라고 한 것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작품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을 줄곧 문제삼았다. 사람이 다투는 것은 권세와 재물 때문이다. 권세를 얻으면 재물도 생긴다. 권세와 재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국가에서 일어나 사회가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의 평화마저 뒤흔든다고 했다. 조정에서 엄승상이 부리는 횡포가 한 집안의 파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맞물려 전개되고 해결되었다. 엄승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원이 된 자의 해독을 또한 심각하게

문제삼았다. 권력 남용이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행복을 유린하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는가 작품 곳곳에서 보여주었다.

부당한 권력은 악당의 악행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는 것은 물질적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자이다. 권력 가까이 가지 못하는 위인들은 악인의 공모자나 하수인이 되어 탐욕 추구에 동참한다. 남녀의 공모자들은 정을 통하는 관계를 쉽게 이루어, 쾌락을 나누고 힘을 합친다. 그처럼 타락된 세태를 다각도로 해부해 보이면서, 진실된 삶이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창작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¹⁰⁾

작품의 내부를 보자. 다각적인 해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게, 설명과 묘사를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활용했다. 선악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불변의 진실은 직설적인 설명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일을 결판 짓을 수는 없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악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말하려면 장면묘사를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알리는 심리묘사도 해야 했다. 단순한 것 같은 작품이 복잡하게 얹힌다. 새로운 사태가 벌어져 모르고 있던 사실이 밝혀질 때 장면묘사를 유용하게 썼다. 사씨가 정원을 산책하다가 뜻밖에 음률 소리를 듣는다는 장면이 그런 예이다. 작품을 어떻게 써서 무엇을 문제삼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대목을 길게 인용하기로 한다.¹¹⁾

부인이 혼자 書案을 의지하고 『禮記』를 보더니, 춘망이 부인더러 고하여 왈,
“花園 小亭에 목단이 만발하였으니, 부인은 구경하심이 어떠하시니까?”

부인이 所望을 따라 시비 오류 인을 네리고 정자에 이르니 柳影은 난간의 멀어지고 花香은 옷에 가득하여 진실로 美景일리라. 시비로 하여금 교씨를 청하고 자 할 때, 홀연히 풍편에 거문고 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귀를 기울이고 들이니, 꼭조 요량하고 성음이 잔잔하여 완연히 구슬이 옥잔에 구르고, 이슬이 花葉에

10) 이상구, 「사씨남정기의 작품구조와 인물형상」, 정규복 외, 『김만중문학연구』(서울 : 국학자료원, 1993)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런 각도에서 해석했다.

11) 이금희, 앞의 책에서 자료의 전반적인 특징을 131-134면에서 설명하고, 원본에 가 장 가깝다고 판단한 필자 소장의 115장본을 이용하고, 『조동일소장국문학연구자료』 8(서울 : 박이정, 1999), 163-392면에 수록된 영인본의 면수를 밝힌다.

떨어지는듯 하는지라, 부인이 聽籠에 시비더러 일러 왈.

“아름답다 이 소리여. 뉘 능히 이 곡조를 타느냐?”

시비 왈,

“교낭자의 소리로소이다.”

부인이 왈,

“교낭자 자주 음률을 타느냐? 마침 오늘 타느냐?”

시비 왈,

“백자당이 내당에서 초원하여 부인은 비록 듣지 못하오나 교낭자 음율을 좋 아하는고로 한가한 때 있으면 매양 타나이다.” 부인이 묵묵히 다시 들으니 이윽 고 거문고 소리 그치고 인하여 시가를 읊으니 당나라 名辭라.¹²⁾

들리는 가사가 당나라 황제 현종이 지었다는 「霓裳羽衣之曲」이라는 것 이었다. 그 노래 사설을 듣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 대목을 보자.

부인 왈,

“낭자의 곡조는 霓裳羽衣之曲이라. 이 곡조 비록 시인의 승상한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때를 의논하면 唐明皇이 변화함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緑山의 난을 만나 만리밖에 찬선하고 楊太眞은 鎏纈譏弄을 면치 못하고 또 馬嵬慘變을 당하였으니 이는 亡國之音이라 족히 승상할 것 없고, 낭자 손쓰는 법이 경망하고 성음이 또 방자하여 사람의 마음을 방탕케 하고 사람의 기운을 화평케 못하고, 또 낭자의 읊는 시는¹³⁾

12) 200~201면. 원문은 “부인이 혼조 서안을 의지하고 의기란 보더니시미 춘망이 부인 다려 고흐여 왈 화원 소정에 목단이 만발하여시이 부인은 귀경하시며 엇더흐시니잇 가 부인이 소망을 좁차 시비 오육인을 다리고 정조의 이르니 유영은 인간의 편치고 화향은 오식 가득하여 진실노미경일러라 시비로 하여곰 교씨랄 청코자 훌 차 호연니 풍편의 거문고 소리 들니거날 부인이 귀을 기우리고 드라니 곡조 유양하고 성음이 잔잔하여 완연니 구사리 육잔의 구으로고 이스리 화엽에 떠지난 듯 혼난지라 부인이 청파의 시비다려 일너 왈 아름답다 이 소리여 뉘 능히 이 곡조를 타나요 시비 왈 교낭지의 소리로소이다 부인니 왈 교낭지 조로 음률을 타나니 마침 오늘 타난야 시비 왈 백자당이 너당으로 초원하여 부인은 비록 듯지 못하오나 교낭자 음율을 조하 혼난고로 한가운 써 잇소으면 미양 타나이다 부인이 묵묵히 다시 드라니 이윽고 거문고 소리 그치고 인하여 가스를 읊푸니 당나라 명스라”이다.

13) 202~203면. 원문은 “부인왈 낭지의 곡조는 예상우의곡이라 이 곡조 비록 시인의 승상한 비 되여어시나 만일 긋싹를 의논하면 당명황이 변화함을 조하다가 마침내 녹순의 난을 만나 말니 뱃게 찬선하고 양터진은 금강기룡을 면치 못하고 쪼 마외참변을 당하여시니 이난 망국지음이라 족히 승상할 것 업고 낭조 손 쓰난 법이 경망하

생략한 대목에서는 교씨가 털은 시가 失節한 여인이나 창녀 노릇을 한 여인이 하는 말을 나타내고 있어 마땅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교씨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했다.

“鄉谷間 여자 음률에 귀 없어 그른 줄 알지 못하다가 부인이 하교하심을 듣자오니 마땅히 골수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오리이다.

부인이 그 무참함을 위로하여 왈,

“내 낭자를 사랑하기로 이런 말 하니, 타인 같으면 어찌 개유하리요. 일후는 나도 부족한 바 있거든 낭자도 은휘치 말라.”

하고 조용히 말하다가 각각 돌아가니라.

이날 밤 한림이 잔치를 파하고 교씨의 방의 돌아와 취홍을 이기지 못하여 난간을 의지하더니, 월색은 그림 같고, 花影은 滿窓한지라, 한림이 가사를 듣고자 하여 시율을 타라 하니, 교씨 사양하여 왈,

“첩이 이제 몸이 風寒에 상한 바 되어 능히 소리를 이루지 못하리로소이다.”

한림이 왈,

“그런즉 거문고를 탐이 어떠하뇨?”

교씨 또 즐겨 아니하거늘, 한림이 재삼 재촉하니 교씨 눈물을 흘리거늘, 한림이 고이히 여겨 물어 왈,

“네 내 집의 들어온 후로 일찍 마음 구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가내 무슨 일이 있건대 이렇듯 하느냐?”

교씨 답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거늘, 한림이 재삼 물으니 교씨 답하여 왈,

“첩이 답하지 아니하자면 한림께 죄를 얻삽고, 답하자면 부인께 죄를 얻삽을 것이니, 답하기도 어렵삽고 답하지 아니하기도 어렵삽나이다.”

한림 왈,

“너를 혐의치 아니 할 것이니, 은휘치 말라.”

교씨 눈물을 닦고 답하여 왈,

“첩이 용열한 소리와 허름한 곡조로 어찌 상공의 귀를 더럽게 하리요마는, 다만 상공의 명을 받아 상공의 홍을 돌을 따름이라, 어찌 다른 뜻이 있으리요. 오늘 부인이 첨을 꾸짖어 왈 ‘상공이 너를 취함은 색을 취함이 아니라 후사를 위함이 거늘, 네 항 상 얼굴을 곱게 하고 상공의 눈에 아름답게 하고, 또 음탕한 소리로 상공의 마음을 미혹케 하고 先少師의 가풍을 더럽게 하니 네 죄 마땅히 죽을지라. 내 아직 용서하노니, 네 종시 고치지 아니하면 내 잔약한 여자이나 오히려

고 성음이 쪼 방자호여 스람의 마음을 방탕케 헛고 사람의 기운을 화평케 못하고 쪼 낭주의 업던 시난 ……”이다.

呂太后 수족 끊는 도끼와 병들고 병어리 되게 하던 약이 있으니, 너는 조심하라'하고 꾸짖기를 엄삼케 하시니, 침은 본디 빈한한 여자라 상공의 은택을 입사와 영화 극진하고 부귀 지족한지라 이제 죽어도 무엇이 한되오리까마는, 다만 저어 하건대 상공의 명덕을 듣지 못하리로소이다."

한립이 청파에 대경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부인이 평일의 투기 아니하기로 하리라 하더니 이 어쩐 말인고? 또 부인이 교씨 대접하기를 예로써 하여 일찍 교씨의 단처를 말 아니하고, 婦僕間이라도 그 죄악을 밝히지 아니하더니 이 어쩐 말인고? 연유를 알지 못하여 침음양구하다가 교씨더러 알,

"너를 취함은 부인이 천거한 바이라. 비록 이런 말이 있으나, 부인의 성품이 유순하니 반드시 너를 해칠 마음이 없을지라."14)

- 14) 204-208면. 원문은 "향곡간 여지 음률에 귀 업서 그른 줄 아지 못하다가 부인에 하교하심을 듯조오니 맛당이 골수에 석이고 잇지 아니하오리이다 부인이 그 무참함을 위로하여 월 니 낭조랄 스랑호기로 이런 말 하니 타인 것타면 엇지 기유하리요 일후 난 나도 부족한 빼 잇거든 낭자도 은휘치 말라 흐고 조용히 말하다가 각각 도라가니라 이날 밤 할님이 잔치를 파하고 교씨의 방의 도라와 취홍을 이기지 못하여 난간을 의지하더니 월식은 기름 갖고 화영은 만창황혼다라 할님이 가스을 듯고자 희여 시울을 타라 하니 교씨 손양하여 월 침이 이즈 모미 풍흔에 승한 빼 되야 능히 소리랄 일우지 못흐리소이다 혼님이 월 그런즉 검은고 탐이 엇더흔뇨 교씨 쏘 질거아니 흐거늘 한님이 짐승 진축하니 교씨 눈물을 훌리거날 훌님이 고이 넉여 무려 월 네 니집의 드러온후로 일즉 마음 구치난 거실 보지 못흐여더니 이제 가니 무슨 일이 잇관더 이럿탓 혼난야 교씨 답지 아니하고 눈물을 훌리거날 훌님이 짐승 무라니 교씨 답희여 월 침이 답지 아니하즈면 할님께 죄를 엊습고 답하자면 부인께 죄랄 엊습을거시니 답하기도 어렵습고 답지 아니하기도 어렵습오이다 훌님 월 너를 험에치 아니 훌거시니 은휘치 말나 교씨 눈물을 닦고 답하여 월 침이 용열흔 소리와 혈음흔 꼭조로 엇지 상공에 귀을 더럽게 흐리요 마못 스공의 명을 이어 상공의 흥을 도울 다람이라 엇디 라난 찌지 잇스리요 오늘 부인이 침을 쑤지자 월 상공이 너을 취함은 식을 취함이 아니라 후스랄 위험히이어날 네 항상 얼굴을 곱게 흐고 상공에 눈의 아람답게 하고 쏘 음탕한 소리로 상공에 마암을 미혹케 하고 선소소에 가풍을 더럽게 흐니 네 죄 맛당이 죽을지라 내 안즉 용서흐노니 네 종시 고치지 아니하면 너 잔악한 여지나 오히려 여티후 수족 뜯난 독기와 병들고 병어리 되게 흐던 약이 이시니 너난 조심하라 흐고 꾸짓기랄 엄삼케 하시니 침은 본디 빈한한 여지라 상공의 은택을 입스와 영화 극진하고 부귀 지족한지라 이제 죽어도 무어시 한되오리잇가마난 다만 저허흐건더 상공의 명덕을 듣지 못흐리소이다 훌님이 청파의 대경하여 시시로 승각 흐되 부인이 평일의 투기 아니하기로 흐리라 흐더니 이 엇진 말인고 쏘 부인이 교씨 대접하기란 예로써 흐와 일즉 교씨의 단처를 말 아니 흐고 비록 비복간이라도 그 죄악을 발키지 아니 흐더니 이 엇진 말인고 연유랄 아지 못흐여 침음양구하다가 교씨 다려 월 니 너를 취함은 부인이 천거한 빼라 비록 이런 말이 이시나 부인에 성품이 유순하니 반드시 너을 해칠 마음이 업실지라"이다.

사람의 행실을 가르치는 고전 가운데 으뜸인 『禮記』를 보고 있던 사씨가 시비의 말을 듣고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러 나간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안의 폐쇄된 공간에서 밖의 개방된 공간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방향을 돌린 획기적인 전환이다. 경치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자 더욱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런데 사씨는 그 음악을 교씨가 연주한다는 말을 듣자, 생각이 달라졌다. 교씨가 노래를 하자 흡을 잡을 방법을 찾았다. 그 노래 가사가 “亡國之音”이고, 행실이 더러운 여성인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으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충고했다.

교씨는 잘못을 공손하게 사죄하고 가르침을 받들겠다고 했다.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반격을 시도했다. 유연수가 음률을 원하자, 교씨는 몸이 아파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재삼 독촉을 받고서, 사씨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탓에 음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고했다. 유연수는 사씨는 현숙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씨를 타일렀으나, 마음속으로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연수, 사씨, 교씨 세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사씨가 교씨를 유연수에게 친거해 첨으로 삼아 후사를 잇도록 했다. 그렇지만 사씨와 교씨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이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출신배경과 사고방식 자체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고귀한 가문에서 교양 있게 자란 사씨는 행실을 바르게 해서 본처의 위엄이 더욱 돋보이게 하지만, 빈천한 시골 사람인 교씨는 특별한 매력을 갖추어야 남편의 사랑을 받아 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사씨와 교씨의 차이점은 자기만의 독서와 남을 위한 음악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사씨는 자기 혼자 생활하는 공간에서 조용히 고전을 읽으면서 품격과 식견을 더욱 높였지만, 교씨는 음악을 익혀 거문고를 연주하고 가사를 노래해 남편의 환심을 사야 했다. 교씨가 노래하는 중국의 고전적인 노래를 익혀서 부른 것은 남편의 취향을 따르고자 해서 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사씨가 보기에는 음악은 방탕한 행실과 직결되고, 교씨가 부른 노래는 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음악 자체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모자라니 불량한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

사씨로서는 교씨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당한 충고를 했다고 자부할 일을 했다 하겠으나, 자기의 판단만 옳다고 하는 주장으로 횡포를 부렸다. 교씨는 사씨처럼 처신하면 자기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 사씨가 들으면 완강하게 부인하겠지만, 그런 언동을 한 이면에는 교씨가 남편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뜻이 있다고 보아 마땅하다.

유연수가 음악을 원하자 교씨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유연수에게 다른 말로 둘러서 공손하게 아뢰면서 사씨가 지시한 따라, 교씨 자기도 도리를 아는 사람이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고 유연수가 기어코 사태의 진상을 알아 평화를 깨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교씨는 사씨가 자기에게 하던 말을 털어놓았다.

교씨는 사씨가 한 말을 전혀 다르게 옮겨 부당하게 왜곡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전달의 표면 층위일 따름이다. 사씨가 한 말의 이면적인 의미는 교씨가 유연수에게 고한 것에 근접되어 있다. 사씨가 사용한 우회적이고 고아한 언사를 직접 대놓고 협박하는 쌍스러운 소리로 바꾼 것은 교씨의 잘못이다. 사실 이상의 과장을 하면서 자기 깜냥에서 벗어나지 못한 천한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평소의 반감을 보태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교씨의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교씨는 사씨가 드러내서 말하지 않은 가운데 은밀하게 암시한 사연을 정확하게 파악해 유연수에게 오해할 여지가 없게 바로 전달했다. 교씨로서는 그렇게 해야 유연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사씨와의 다툼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영민해야 하고, 명분이 모자라면 책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은 누구 잘못인가? 교씨가 음악을 한 것이 원천적인 잘못인가? 교씨가 음악을 한다고 나무란 사씨가 잘못했는가? 처첩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덮어두지 않고 기어코 캐물은 유연수의 잘못인가? 사씨의 말을 그릇되게 옮긴 교씨의 잘못인가?

작품은 독자가 교씨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교씨의 악행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악은 상대적이어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교씨의 행실이 악하다고 나무라는 절대선의 화신인 사씨는 교씨의 반발을 초래했다. 교씨의 음악을 탈잡은 사씨의 언행은 작품의 표면에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지만, 도덕주의, 엄숙주의, 감계주의 등의 말을 써서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는 태도의 횡포이다. 사씨는 교씨가 자기 존재의의를 지키도록 자극하고, 최상의 방어는 공격임을 깨달아 실천하도록 했다. 사씨와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킨 교씨는 승리에 도취되어 무리한 짓을 하다가 처참하게 패배했다.

유연수 쪽에도 문제가 있다. 유연수는 처첩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사씨가 교씨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니 교씨 또한 사씨의 뜻에 순응해 집안이 계속 평화로우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착각이다. 유연수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무능한 사람이다.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하고 나라 일을 보는 데는 대단한 식견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는 데는 아주 어두워, 교씨의 모해에 말려들어 사씨를 집에서 내쫓는 데까지 이르렀다. 학식만 있고 경험은 없어 세상을 모르던 유연수나 천자는 악인의 득세를 허용해 자기 자신이 험난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진상을 알아차린 것이 교훈으로 삼아 마땅한 일이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에서 묘사와 대화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표면상 우호적이면서 사실은 적대적인 세 인물 사이에서 조성된 상황과 세 인물의 내심의 거리를 면밀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세 가지 잘못의 문제를 놀라운 수준으로 예리하게 제기했다. 사씨의 잘못은 뒤로 물려놓고, 유연수의 잘못은 이따금 문제삼으면서, 교씨의 잘못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다루었다.

그런 편향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도덕주의의 편견을 나타내는 사씨의 잘못보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세태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아 교씨의 잘못을 다루는 데 힘썼다고 할 수 있다. 사씨를 통해 표상화된 天理를 부정하고 교씨가 보여주는 人欲을 궁정하는 사상의 전환을 마련할 수는 없어서 그 둘 사이의 싸움에서 뒤의 것이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할 수도 있다.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악의 행적을 깊이 파헤치는 것이 현실을 편진하게 그려 소설을 홍미롭게 쓰는 마

땅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도 있다.

유연수가 사씨를 더욱 의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씨가 만들어낸 그 다음의 사건은 한층 교묘하게 전개되었다. 사씨가 교씨를 모해했다고 의심하도록 교씨가 조작한 증거를 유연수가 무시하고자 하는 뜻을 교씨가 받들어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이면에서, 교씨가 사씨를 공격하는 교묘한 작전이 성공을 거두어 우열을 전복하는 싸움이 격화되었다.

의식과 상황의 어긋남이 계속 문제가 된다. 누구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뜻한 바와 결과는 어긋난다. 선인은 선인대로 어긋나고, 악인은 악인대로 어긋난다. 순수하고 착한 마음은 상황 인식을 그르치는 약점이다. 지나친 욕망으로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무리한 짓을 하면 예기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러 파멸을 자초한다. 그래서 반전이 거듭 일어난다.

고난이 극도에 이르면 반전이 있게 마련이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도덕적 당위성, 악은 지나쳐서 파멸한다고 하는 이치를 보아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된다. 선인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꿈속의 일이나 신령의 출현 같은 초월적인 요소가 개입해서 예언을 하고, 전환의 국면을 만든다. 그러나 전환을 실제로 이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데서 선인과 악인이 경쟁한다. 선인과 악인의 싸움은 선과 악이 그 자체로 어떤 힘을 발휘하지는 않고, 상황과 의식의 일치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선한 사람은 상대방이 악인인 줄 모르고 선량하다고 생각하지만, 악인은 악행을 저질러 상대방을 해친다. 상대방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약점을 시정하고 상황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선인은 무능하지만 악인은 유능하다. 선인과 악인의 다툼에서 악인이 이긴다. 그러나 악인의 승리가 결말일 수는 없고 반전이 있다. 악인은 선인을 해치고 악행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정도가 지나치면 실패한다. 지나친 것은 잘못인 줄 알아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악인이 유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공모자나 하수인이 필요하다. 공모자와 하수인을 잘 다루는 것이 악인의 능력이다. 그러나 공모자나 하수인은 악인

을 배신해 자기가 이익을 가로챈다. 그것이 악의 속성이다. 그 때문에 악인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씨는 동청과 사통하고 다시 냉진과 사통하다 냉진이 동청을 배신하고, 냉진의 짐을 지고 가던 정대관이라는 위인은 냉진을 배신했다.

악인의 하수인은 사태가 불리한 줄 알면 개심해서 선인의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 이익을 얻고자 해서 악인을 따른 하수인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악의 세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신념을 대신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사씨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맡았다가 죽이지 않고, 그 비밀을 나중에 사씨에게 알려준 시비가 그런 인물이다.

악인은 상황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지만, 하수인이 앞서나가기도 하고 마음을 돌리기도 하는 것은 헤아리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달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아무리 유능한 악인이라도 미리 헤아리지 못한다. 선인 쪽은 선인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인의 의식이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살피면 여러 등급이 있다.

자기는 선하다는 관념에 아주 매몰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다. 당장 닥친 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깨닫기는 해도 어찌 할 방도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혁명하다. 표면상으로는 권선징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깨어남에 대해서 말했다. 착한 것보다 슬기로운 것이 우선하니, 마땅히 슬기로워야 한다고 했다.

의식의 깨어남에서 사씨가 유연수보다 앞선다. 유연수는 과거 보아 급제하고, 관원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집에서 일어난 음모는 모르니 무능하다. 글공부는 잘 했어도 인생공부는 모자란다. 사씨가 국문으로 지은 觀音讚은 대단한 글이다. 관음을 행실이 훌륭한 부녀에다 비겨 가까운 곳으로 끌어들였다. 그 글을 쓴 것이 인연이 되어, 관음찬을 요청한 여승 묘혜가 위기에 처한 사씨를 구출하니, 관음의 보살핌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수난이 닥쳤을 때 유연수는 아무 대책이 없었으나, 사씨는 어떤 사태에도 당당하게 맞서고자 했다. 사씨가 가정에 묻혀 있기만 했으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인생공부에서 앞서서 가정을 이끄는 힘으로 세상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씨와 교씨의 싸움이면서, 유연수와 사씨 사이의 대결이기도 해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 가정이 시련을 겪고 파탄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국가의 변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어 질서가 무너지는 양상을 더 큰 규모로 다루었다.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를 연결시키는 고리 노릇을 동청이라는 인물이 했다. 동청은 행실이 다음과 같았는데 유연수가 서기로 채용했다.

동청은 上大夫의 자식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잡인으로 締結하여 한갓 술 먹고 잡기만 좋아하더니 가산이 탕폐하매 托身할 곳이 없서 京師에 와서 재상가에 턱신하더라. 그 위인이 또 장차 있으니 형용이 순수하고, 언사가 민첩하고, 서법이 또 정묘하매 사대부들이 처음에는 죄다 사랑하다가 오래 된즉 불법지사 를 행하고 가내 왕래지인을 추출하매, 이러므로 諸處에 용납되지 못하고¹⁵⁾

동청은 근본은 사대부이지만 행실이 불량한 시정배가 되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갔다. 식견 있는 사람들은 한 때 가까이 하다가도 버리는데, 유연수는 그런 줄 모르고 받아들여 집안 일을 맡겨 회를 자초했다. 그런 위인이 교씨와 사통해 공모자가 되어 사씨를 축출한 다음 유연수를 모함해 귀양가도록 만들고, 승상 엄승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다고 해서 악인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태가 어디까지 갔는가 보여주었다.

천자가 태자를 책봉하고 온 천하의 죄인을 모두 사면하자 유연수도 귀양에서 풀렸으나 서울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 벼슬할 생각을 단념하고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다. 장차 자기 농토가 있는 시골로 처자를 데리고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가, 어떤 관원의 행차를 만났는데, 바로 동청이었다.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문득 북녘에서 오는 일행 人馬 辟易하는 소리 들리더니 이윽고 赤鳳凰旗로

15) 213-214면. 원문은 “동청은 스부가에 즐식으로 일즉 부모를 일코 잡인으로 체결하여 한갓 술 먹고 잡기만 조하하더니 가산이 탕락하마 턱신흘 고지 없서 경스에 와서 재상가에 턱신하더라 그 위인이 쪼 장차 이시니 형용이 순수하고 언사 민첩하고 서법이 쪼 정묘하마 스터부들이 처음으난 죄다 소랑하다가 오려 된즉 불법지사를 헝하고 가내 왕래지인을 추출하마 이러므로 제쳐의 용남지 못하고”이다.

좌우를 옹위하고, 크게 소리하되 “행인은 꾀하라 !”하니, 일시에 행인들이 다 피 하거늘, 한림이라 죽림 사이에 몸을 숨기고 눈을 들어본즉, 이는 동청이라. 대경 왈, “이놈이 어찌 靑靄을 이루었느냐? 그 행색 보니 만일 자사가 아니면 태수라, 반드시 엄승상에게 붙어 이 벼슬을 얻음이로다.” 더욱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또 哚道之聲이 들이거늘, 이 금시에 시녀배들이 칠보를 옹위하고 천천히 행 하니, 빛은 날빛을 희롱하고 腹내는 觸鼻하여, 威儀之景이 前行보다 倍나 한지 라.¹⁶⁾

벼슬을 하던 유연수가 일반백성의 처지가 되어 벼슬아치의 행차를 만나, 소리 치며 호령하는 대로 몸을 피해야 했다. 벼슬아치란 공연히 거들며거리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임을 알고, 유연수는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청이 있다.

무자격자인 동청이 벼슬을 한 것은 엄승상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아부했기 때문임을 쉽사리 알아차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권을 차지하고, 벼슬을 과는 짓을 하니, 용납할 수 없다. 벼슬아치 뒤를 따라가면서 벼슬아치보다 더욱 야단스럽게 꾸며 행차를 하는 여인은 바로 동청의 아내가 된 교씨였다. 동청이 벼슬을 한 연유는 알아차린 유연수가 그 여인이 교씨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 대목에 작품 전체에서 문제된 몇 가지 탐욕이 한꺼번에 나타나 있다. (가) 모든 벼슬아치는 야단스러운 행차를 하면서 지위를 과시한다. (나) 나라를 부당하게 차지해 횡포를 부리는 집권자는 관직을 자기 소유물로 여겨 팔아 돈을 쟁기면서 질서의 근본을 어지럽힌다. (다) 지위에 대한 욕망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야심가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벼슬을 차지한다. (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타락된 여인은 간부와 공모해

16) 319면. 원문은 “문득 북녘호로 오는 일행 인마 벽역호난 소리 들니더니 이윽고 적 봉황기로 좌우란 옹위하고 크게 소리 흘터 길인 기호라 흔니 일시에 헝인드리 나 피 호거날 홀님이 죽임 스이 몸은 숨기고 눈을 드러 본즉 이에 동청이로 떠경 왈 이놈 이 엊지 평운을 일윗나나 그 형식 보니 만일 자사가 아니면 턱슈라 반드시 엄승상제 부터 이 비시를 얻음이로다 더욱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쪼 가도지성이 들이거 날 이 금시에 시녀비드리 칠보를 옹위하고 천천히 헹흐니 비취난 날비줄 히롱하고 헝내난 촉비하여 위의디경이 전횡의서 비나 한지라”이다.

남편을 위해하고 애정과 지위를 얻는 행각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 가운데 (라)는 작품의 결말에서 분명하게 징치되었다. (다)를 행한 인물 또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탐욕이 지나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나타냈다. 그러나 (다)는 소극적으로 처리되었다. 천자가 정신을 차리고 부당한 권력자를 내쳤다고만 하고, 부당한 권력이 그 자체로 폐망을 자초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다. (가)에 관해서는 어쩌다가 관심을 가졌을 때ющим이고, 일관되게 문제삼지 않았다.

(라)의 탐욕은 권선징악의 명확한 논리에 따라 다스렸다. 악인 교씨와 맞서는 선인 사씨가 있어서 그럴 수 있었다. (다)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인을 배신하는 비열한 야심가와 대조가 되는 긍정적인 인물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반론이 불분명하다. 악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뉘우치고 돌아선 시비만으로는 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이다. (나)에는 권선징악이 적용되었다 하기 더욱 어렵다.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는 정당한 권력자가 어떤가 말하지 못했다. 유연수는 그런 인물 노릇을 하기에 많이 모자란다. (가)에 관해서는 선악의 시비를 벌이지 않았다.

(라)의 영역에서 사씨는 선하고 교씨는 악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교씨의 처신이 어째야 하는가에 관해서 사씨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 과연 타당한가에는 의문이 있다고 앞에서 분석했다. 사씨의 도덕주의가 불가피하게 저지르는 횡포에 대한 교씨의 반항은 전혀 부당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옹호할 여지가 없지만, 그 동기나 출발점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에서 동청이 저지른 악행을 기존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탈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거기다 (나)까지 보태서, 이 소설은 탐욕이 빚어낸 악행을 다루는 것을 특별한 의의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설씨나 유연수보다 교씨나 동청이 더욱 생동한 인물인 것이 그 때문이다.

선인의 선행보다 악인의 악행이 더욱 긴장되고 흥미롭고 현실감 넘치는 화제 거리임을 보여주어 관심을 끌었다. 모든 소설의 공통점을 일찍 선명하게 갖추어서 소설 형성에서 획기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면서 권선징악을 한 작품이라고 평가되어, 소설 배격론이 소설 옹호론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권선징악을 작품의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권선징

악이 제대로 적용된 영역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악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선악의 문제를 현우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다른 일면의 진실을 말했다.

사람의 善惡이나 賢愚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미리 정해져 있는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인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바뀌는가? 善은 善이고, 惡은 惡인가? 善이 惡이고 惡이 善일 수 있는가? 賢은 賢이고, 愚는 愚인가? 賢이 愚이고 愚가 賢일 수 있는가? 善은 賢이고, 惡은 愚인가? 善은 愚이고, 惡은 賢일 수 있는가? 둘로 갈라진 생각 가운데 앞의 것에 근거를 둔 한 시대의 질서가 국가에서도 가정에서도 무너지는 위기상황을 문제삼아, 질서 회복의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하면서 뒤의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 것이 작품 심층의 주제이다.

『적과 흑』

『적과 흑』의 작자 스탕달(Stendhal, 1783-1842)은 본명이 앙리 베일(Henri Beyle)이다. 프랑스 동남부 산간도시 그르노블(Grenoble)의 시민층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르노블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1799년에 파리에 가서 이공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00년에 나폴레옹의 군대에 들어가 소위로 임관되고 나폴레옹을 따라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 여러 곳의 원정에 참가했다. 나폴레옹이 실각한 뒤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에 가서 머물면서 탈출을 꾀하고, 문필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나폴레옹의 전기를 집필했으나 바로 출판하지 못했다.

스탕달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 부양가족은 없었으나,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다. 나폴레옹의 군대에 들어가서 이념을 실현하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만, 취직 자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더욱 절박한 사정이었다. 군대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사이에는 마르세이유에서 장사를 하

고 은행원 노릇을 했다. 나폴레옹이 물러나서 자기도 공직을 사임해야 했던 1814년부터 7월 혁명이 일어나자 외교관으로 발탁된 18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파리에 머물면서 문필활동으로 살아가야 했다.¹⁷⁾

본명을 버려두고 스탑달을 포함한 2백 개 가까운 필명을 사용했다.¹⁸⁾ 그 이유는 수입을 얻기 위해 잡다한 글을 많이 써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거나 단행본으로 내면서 자기가 누군지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스탑달이 글을 쓴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한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썼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성격의 18세기적인 측면이 요구하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글을 썼다.¹⁹⁾ “골방에 들어앉아 소설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운 일이다”고²⁰⁾ 만년에 술회한 것은 뒤의 경우가 더욱 소중하다고 한 말이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 때문에 돈이 되는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못했다. 쓴 글을 다 발표한 것은 아니다. 지면에 발표하거나 출판하지 못한 많은 원고를 여러 친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출판해달라고 하는 유언장을 거듭 썼다. 원고를 보관한 사람이 출판하지 못하면 그 원고를 누구에게 전하라는 말도 유언장에 써놓았다고 한다.²¹⁾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사회를 지배한 것이다. 귀족의 지배체제를 재확립하고자 한 왕정복고가 있었어도 그런 추세를 멈추지 못하고, 시민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 스탑달은 “출신이나 학식의 자리를 돈이 차지한 시대에 살았다”는²²⁾ 것이 적절한 지적이다. 편지나 일기에서 돈 문제를 계속 거론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파리에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1,200프랑이다”라고 스탑달이 밝혀 놓았다.²³⁾ 그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

17) 그러한 사정을 Lily R. Felberg, *Stendhal et la question d'argent au cours de sa vie* (Aran, Suisse : Grand Chêne, 1975)에서 자세하게 밝혔다.

18) Claude Roy, *Stendhal* (Paris : Seuil, 1995), 5면.

19) 같은 책, 7면.

20) 같은 책, 같은 곳.

21) 같은 책, 65-66면.

22) Lily R. Felberg, 위의 책, 6면.

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고, 단행본을 냈다. 『모차르트의 생애』(*Vie de Mozart*), 『로마 산책』(*Promenades dans Rome*) 같은 것들은 돈벌이 위주로 마구 쓴 책이다. 『연애론』(*De l'amour*)만 해도 진지한 내용이어서 거의 팔리지 않았다. 1821년부터 1830년까지의 9년 동안의 수입을 보면 총계 7,500프랑이었다.²⁴⁾ 『로마 산책』을 써서 1,500프랑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수입이었다. 1,000프랑을 번 책이 두 종 있었다. 그밖의 수입은 아무 글이나 닥치는 대로 써서 얻든 것이다. 인기작가인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1828년 한 해 동안에 7,200프랑을 벌었으나, 스탕달은 그럴 수 없었다.

『적과 흑』을 낼 때 작성한 계약서가 남아 있다. 출판업자가 책을 1,500부 썩고, 1,500프랑을 주기로 하고, “원고를 넘길 때 500프랑, 3개월 어음으로 500프랑, 6개월 어음으로 500프랑을 지급한다”고 했다.²⁵⁾ 그러나 실제로 받은 돈은 600프랑뿐이었다. 나머지는 1833년까지도 지불되지 않았다.²⁶⁾ 책이 예상한 대로 팔리지 않아 출판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적과 흑』은 “1830년의 연대기”(Chronique de 1830)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혁명이 1814년에 나폴레옹의 실각과 더불어 왕정복고기에 들어서 실패했다가 1830년에 7월 혁명이 다시 일어나기 직전의 프랑스 사회상을 그렸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설의 임무는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소설의 임무라고 선언했다.

작가 스탕달은 자기 자신이 좌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작품의 주인공 젤리앙 소렐(Julian Sorel)을 통해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하층민 출신이고, 자기는 시민층 출신이다. 주인공은 처형되어 일생을 마쳤지만, 자기는 7월 혁명을 겪고 오랜 소망을 이루었으며 외교관으로 발탁되어 이탈리아로 파견되었다. 이 작품 『적과 흑』은 좌절기에 써서 드의기가 시작될 때 세상에 내놓았다.

『적과 흑』은 1829년에 쓰기 시작해서 1830년에 출판했다. 1830년에 일어

23) 같은 책, 6면.

24) 같은 책, 49면.

25) 같은 책, 103면.

26) 같은 책, 52면.

난 일을 다룬다고 하는 소설을 그 해에 출판했다. 소설에서는 7월 혁명 직전의 사정을 그리고, 소설을 출판한 시기는 7월 혁명 직후라는 차이밖에 없다. 소설이 과거를 회고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당대에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현장보고여야 한다는 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작품을 쓰고 출간했다.

작품의 무대는 프랑스 동남부 프랑쉬-콩테(Franche-Comté) 지방의 소도시 베리에르(Verrières)라는 곳이다. 거기서 제재소를 차리고 목수일을 하는 무식한 영감 소렐(Sorel), 못을 만드는 공장의 주인이며 그 곳의 市長인 드 래날(de Rénal), 그리고 파리 정계의 거물이며 대부호인 라 몰(La Mole) 侯爵을 통해서 하층민·시민·귀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층민은 상승의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시민은 상당수가 귀족지배체제에 편승해서 작은 이익을 얻는 데 만족하고, 귀족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안정된 것 같으나, 그 이면에 심각한 갈등이 내재에서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상황을 생동하게 나타냈다.

소렐 영감의 아들 젤리앙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비약을 시도했다. 나폴레옹의 군대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赤'의 길이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막히자, 성직자가 되는 '黑'의 길을 택하고자 해서 라틴어를 공부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귀가해서 무위도식한다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기만 했다. 인정받을 길이 없어진 학식과 재능을 여성들의 환심을 사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

젤리앙은 레날 시장 집 가정교사가 되어 시장 부인과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익이 되는 것만 챙기는 레날 시장의 속물근성 때문에 실망하고 있던 부인이 젤리앙에게서 낭만적인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매혹되었다. 그러나 젤리앙은 낭만적 사랑을 수단으로 이용했을 따름이므로, 레날 부인을 버리고 더욱 유리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라 몰 후작에게 고용되어 그 집에 가자, 후작의 딸 마틸드(Mathilde)을 연인으로 만들었다. 주변에 있는 귀족청년들이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자기 환심을 사는 데만 몰두한 꿀을 보고 진저리를 내던 마틸드가 냉담하고 거만한 거동을 하고 있는 젤리앙을 굴복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젤리앙의 작전이었다.

쥘리앙은 마틸드와 결혼을 약속해 후작의 사위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는데, 레날 부인이 후작에게 편지를 보내 방해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레날 부인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가, 모든 비행이 탄로나 재판에 회부된 결과 쥘리앙은 사형되어 일생을 마쳤다. 쥘리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급상승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기득권자들은 허용하지 않았다. 사형선고가 내린 재판장에서 쥘리앙이 배심원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최후의 진술에 작품에서 문제된 계급갈등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죽음의 순간에 부당한 경멸을 받을까 염려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계급에 속하는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나시피 나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항거한 일개 농민입니다.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 헛된 기대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온갖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한 부인의 생명을 빼앗을 뻔했습니다. 드 레날 부인은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하고, 또한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내 죄가 좀더 가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아니 동정할 만하다고 하지 않고, 나를 벌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층계급에서 태어나 가난에 찌들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교육을 잘 받는 행운을 얻은 젊은이가 부유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자기네만의 사교계라고 하는 곳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도록 용기를 아주 꺾어버리려고 나를 징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나와 같은 계급의 동료들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더욱더 준엄한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심원석에 부유한 농민 하나 보이지 않고, 분개하고 있는 부르주아뿐이군요.²⁷⁾

27) Stendhal, *Le rouge et le noir* (Paris : Gallimard, 1958), 485-486면; 김봉구 역, 『적과 흑』(서울 : 정음사, 1970), 450-451면; 이동렬 역, 『적과 흑』(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하, 360-361면. 두 종의 국역을 참고하면서, 말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원문을 다시 번역했다. 다른 인용구도 그런 방식으로 다시 번역한 것이다.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Messieurs les jurés

L'horreur du mépris, que je croyais pouvoir braver au moment de la mort, me fait prendre la parole. Messieurs, je n'ai point l'honneur d'appartenir à votre classe, vous voyez moi un paysan qui s'est révolte contre la bassesse de la fortune.

이 대목에서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가 밝히는 철리앙은 사회구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의 말을 통해서 표명된 작가의 사회의식이다. 하층민은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고, 상층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계급투쟁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작가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의 일면이고, 표면이다. 더욱 심각하고 격렬하며 범위가 큰 계급투쟁은 계급을 구분하는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다. 스탑달이 경험한 7월혁명은 그런 혁명이었다.

그런데 작품에서 계급상승의 문제만 다루고 계급혁명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철리앙이 자기 혼자 계급상승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은 같은 계급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계급혁명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임을 확인해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점을 철리앙이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 또한 알아차리지 못했다.

계급혁명에 관해서는 시민총이 들고일어나 귀족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릴까 귀족들이 염려하는 대목에서 언급되고 있을 때이다. 시민총은 귀족을 따르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한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그리지 않았다. 하층민은 혁명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언가 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 추진세력과

Je ne vous demande aucunne grâce, Je ne me fait point illusion, la mort m'attend : elle sera juste. J'ai pu attenter aux jours de la femme la lus digne de tous les respects, de tous les hommages. Madame de Rénal avait été pour moi comme une mère. Mon crime est atroce, il fut prémedité. J'ai donc mérité de la mort, messieurs les jurés. Mais quand je serais moins coupable, je vois des hommes qui, sans s'arrêter à ce que ma jeunesse peut mériter de pitié, voudront punir en moi et décourager à jamais cette classe de jeunes gens qui, nés dans une claasse inférieur et en quelque sorte opprimés par la pauvreté, ont le bonheur de se procurer une bonne éducation, et l'audace de se mêler à ce que l'orgueil des gens riches appelle la société.

Voilà mon crime, messieurs, et il sers puni avec d'autant de sérénité, que, dans le fait, je ne suis ponit jugé par mes pairs. Je ne vois point sur les banes des jurés quelque paysant enrichi, mais uniquement des borgeois indignés."

대상, 정체와 방향에 관해서는 모르는 채 작품을 썼다. 젤리앙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했다. 혼자 생각하면서 중얼거린 말을 작품에서 길게 늘어놓았다. 그 가운데 모든 시비를 바르게 가려주는 신이 있어야 한다고 한 대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어느 신이란 말인가? 잔인하고 복수에 목말라 하는 작은 폭군, 성경의 신은 아니다 …… 그러나 정당하고, 선량하고, 영원한 신, 볼테르의 신이라면 ……²⁸⁾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부정했다. 그 대신에 내세운 볼테르(Voltaire)의 신은 정체가 모호하다. 이것 또한 주인공의 생각이자 작자의 생각이다. 스탑달은 볼테르를 지침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볼테르는 “정당하고, 선량하고, 영원한 신”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평을 따름이다. 신의 섭리 대신에 사람의 이성이라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으나, 각자 자기가 이성의 편에 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어떻게 시비해야 하는가 문제이다.

무엇이 정당하고 선량하고 영원한가 가려내는 역사철학이나 사회사상을 설득력 있게 마련하지 못하고 혁명을 한 것이 실제상황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현실의 움직임을 따르지 못하고, 역사의식이 역사의 향방과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다. 의식과 상황의 어긋남을 거대한 규모로 겪고 있다는 것을 의식이 막혀 있어 바로 알지 못했다. 이 소설은 작자가 의도한 바는 다르게, 거듭 분석하고 평가한 많은 논자들이 말한 바와는 동떨어지게, 바로 그 점을 입증하는 증거 노릇을 한다.

작품의 전체적인 전개를 거시적인 면에서 파악하면 그런 미비사항이 있지만, 세부의 진행은 치밀하고 정확하다. 작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바로 나타내는 것은 결말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일이고, 그 전까지는 줄곧 묘사에 힘쓰면서 묘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설명은 되도록 배제했다. 눈앞에서 벌

28) 원문, 503-504면; 김봉구 역, 466-467면; 이동렬 역, 하, 386면. 원문은 : “Mais quel Dieux? Non celui de la Bible, petit despote cruel et plein de la soif de se venger …… mais le Dieux de Voltaire, juste, bon, infini ……”

어지는 일을 예민하게 관찰해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암시만 했다.

서두의 제1장을 보자. 거기서 작품이 벌어지는 장소와 사건에 대한 예비 지식을 제공하면서 또한 작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했다. 전에 볼 수 없던 별난 수법을 사용한다고 실례를 들어 알려주어, 독자가 긴장하도록 했다. 줄거리를 과아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버리고, 장면 하나, 말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도록 했다.

제1장의 표제는 「어느 작은 도시」(Une petite ville)라고 했다. 프랑수-콩테 지방에 있는 베리에르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일컬었다. 무엇을 말했는가 문단별로 요약해보자. (1)에서 (14)까지 문단마다 번호를 붙인다.

- (1) 베리에르의 원경을 그리고, 근처의 산 위에는 예전에 스페인인들이 만든 성 채가 파괴된 채 남아 있다.
- (2) 베리에르의 균경을 그리고, 제재소에서 나무 자르는 소리, 웃감 짜는 소리가 시끌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다.
- (3) 그 곳 市長이 소유한 못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크다.
- (4) 市長의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 (5) 市長인 드 레날이 어떤 사람인가 말했다.
- (6) 드 레날의 집과 정원을 보여주었다.
- (7) 드 레날이 그 집을 짓게 된 경위를 말하고, 가문의 내력을 밝혔다.
- (8) 드 레날은 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시장이 되고, 큰 저택을 가지게 되었다.
- (9) 담을 높이 쌓을수록, 소유지가 많을수록 존경을 받는 곳이어서, 드 레날은 소렐 영감이 제재소를 하던 땅을 사놓아 자기 집을 늘렸다.
- (10) 드 레날은 소렐 영감의 제재소를 옮기도록 하고, 물레방아를 이용해 제재소를 움직이게 하는 공공하천의 물줄기도 옮기는 허락도 얻어냈다.
- (11) 소렐 영감은 시가보다 많은 돈을 받고 땅을 내놓았다.
- (12) 드 레날은 세 아들을 둔 소렐 영감을 부러워하며 거래를 더욱 유리하게 할 작정을 했다.
- (13) 드 레날은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경솔한 것은 하지 않아 여론의 지탄을 피했다.
- (14) 그 곳에서는 분별 있는 인사의 여론이라는 것이 횡포를 자행했다.

(1)에서 (5)까지에서는 파리에서 간 여행자가 그 곳에 이르러 사방을 살피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말한다고 하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밖에서 안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시선을 옮겼다. (1)에서 말하는 산 위의 성채는 먼 과거의 흔적이다. 서로 다른 민족끼리 싸울 때 쓴 성채가 (9)에서 말할 계급 사이의 담과 대조를 이룬다. (2)에서 말한 갖가지 소리는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 역사의 움직임을 말한다. 여러 형태의 공장제수 공업 가운데 못 공장이 가장 번성해 그 주인이 市長 노릇을 한다고 (3)에서 말했다. (4)를 거쳐 (5)에서 드 레날이 어떤 사람인가 말했다.

(5)는 차림새, 생김새, 그리고 사람됨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외면에서 시작해서 내면으로 향한다. 걸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부터 말하다가, 마음씨를 살피는 데까지 이른다. 세밀한 계산을 해서 묘사의 수법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가) · (나) · (다) ……로 구분한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문을 되도록 충실하게 옮기고, 문장부호를 원래대로 사용한다.

(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이들의 모자가 재빨리 벗겨진다. (나) 그 사람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며, 회색 양복을 입고 있다. (다) 훈장을 여러 개 받은 사람이며, 넓은 이마에 매부리코이고, 전체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다 : 첫 인상에, 시끌 시끌다운 위엄에다 사심팔 세나 오심이 되어도 아직 간직하고 있는 매력을 보탠 모습이다. (라) 그러나 파리에서 간 여행자는 이내 그 사람이 자만하고 자족하는 듯한 태도에다 무언가 편협하고 진취성 없는 성격을 보탠 것을 보고 매스꺼운 생각이 든다. (마) 자기가 받을 돈은 제 때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가 줄 돈은 되도록 늦게 주는 것 외에 다른 재능이라고는 없는 위인임을 눈치채게 된다.²⁹⁾

29) 원문, 10면; 김봉구 역, 14면; 이동렬 역, 상, 4-5면. 원문은 : "A son aspect tous les chapeaux se lèvent rapidement. Ses cheveux sont grisonnants, et il est vêtu de gris. Il est chevalier de plusieurs ordres, il a un grand front, un nez aquilin, et au total sa figure ne manque pas d'une certaine régularité : on trouve même au premier aspect, qu'elle réunit à la dignité du maire de village cette sorte d'agrément qui peut encore se rencontrer avec quarante-huit ou cinquante ans. Mais bientôt le voyageur parisien est choqué d'un certain air de contentement de

(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보인 태도를 간단한 말로 대강 그렸다. (나)에서는 첫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외형을 묘사했다. (다)에서는 차근차근 뜯어보아야 알 수 있는 모습을 그렸다. (라)에서는 걸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마음가짐을 살폈다. (마)에서는 처세의 비결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아내서 어떤 인물인가 판정했다. (라)에서는 관찰자를 “파리에서 간 여행자”라고 환기했다. 파리에서 간 여행자가 마을을 살핀다고 한 것은 앞에서도 한 말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새삼스럽게 그 말을 한 것은 (다)까지와 (라) 이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까지는 누구든지 살필 수 있지만, (라) 이하의 것은 파리 사람의 안목을 갖추어야 알아낼 수 있고, 파리의 진취적인 기상에서 보면 가소롭게 여겨 마땅한 촌스러운 고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앞세웠다.

(가)에서 (마)까지에서 그리고 살핀 바를 종합하면, 드 레날 시장이란 위인은 마을에서 크게 행세하고, 상당한 위엄을 지니고 있지만, 권력을 존중하고 권위를 자랑하면서, 촌스러운 태도로 돈을 모으는 속물이다. 그것은 금력과 권력을 아울러 지니고 지방유지로 행세하면서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에 속하는 시민의 모습이다. 독자가 주의해서 살피면 그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작품을 짜나갔다.

작자는 그런 시민에 대해 반감을 가져 드 레날이라는 인물을 설정했다. 역사의 전개에서 차지한 위치를 거시적으로 규정한다면, 그런 위인은 공장 체수공업으로 이익을 얻는 데 만족해 산업혁명을 원하지 않고, 귀족의 지배 체제에 안주하고 있어 시민혁명에 반대하는 보수화한 시민이다. 그 점은 작품에서 말하지 않고 있어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할 사항이다. 작자가 나타낸 반감이 그런 역사적인 평가에 근거를 두었다는 증거는 없다.

(6)에서 (8)까지는 시선을 돌려 집과 정원을 묘사하면서, 드 레날이 어떤 위인인가 보충해서 말했다. 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묘사에다 설명을 겹들이는 방법을 썼다. 오랜 내력을 가진 지방유지이며, 공장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창피스럽게 여겨 관직을 얻고, 집과 정원을 크게 늘려 행세거리

soi et de suffisamment mêlée à je ne sais quoi de borné et de peu inventif. On sait enfin que le tanlent cet homme-là se borne à se faire payer bien exattement ce qu'on lui doit, et à payer lui-même le plus tard possible quand il doit.”

로 삼았다. 시민이 귀족화한 모습이다. (9)에서 (12)까지에는 담을 높이 쌓으면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말로 빈부를 나누어놓는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말하고, 드 래날과 소렐 영감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소렐 영감은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제재소를 가지고 목수 노릇을 하는 하층민이다. 농민의 처지에서 벗어나 돈을 좀 벌기는 했어도 지위가 낮고 무식하다. 하는 일이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수공업이다. 드 래날은 소렐 영감의 제재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 땅을 자기 정원에다 보탰다. 그러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제재소를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하천의 흐름을 바꿀 때 파리의 정계와 결탁되어 있는 배경을 이용했다. 소렐 영감은 드 래날이 지난 땅부자의 허욕을 이용해 땅 값을 비싸게 받았다. 서로 유익한 거래를 하면서 힘을 겨루었다. 서로 적대적인 계급 사이의 다툼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3) 이후에서는 드 래날이 여론을 의식해서 집을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짓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은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여론이 밀고 당기는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고장의 보수성을 은근히 나무라고, 여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혈뜯었다. 거기까지 이른 (14)의 전문을 들어보자.

실제로 식견 있는 인사라는 자들이 거기서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횡포를 자행했다. 파리라고 불리어지는 거대한 공화국에 살던 사람이 거기 가서 머무를 수 없는 것은 그 고약한 횡포 때문이다. 폭군 노릇을 하는 여론 - 무슨 놈의 여론인가 - 그것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도 명청이 노릇을 했다.³⁰⁾

파리는 보수적인 소도시와는 다르게 진보를 누리고 있는 별세계이다. 파리에서 간 여행자가 베리에르를 살핀다고 한 설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30) 원문, 12면; 김봉구 역, 15-16면; 이동렬 역, 상, 7면. 원문은 : "Dans le fait, ces gens sages y exercent le plus ennuyeux despotisme; c'est à cause de ce vilain mot que le séjour des petits villes est insupportable pour qui a vécu dans cette grande république qu'on appelle Paris. La tyrannie de l'opinion, et quelle opinion! est aussi bête dans les petites ville de France que'aux Etats-Unis d'Amérique.

여기서 뚜렷해진다. 보수적인 소도시는 유지라는 자들이 좌우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여론 때문에 혁신될 수 없다고 하고서, 여론 자체를 나무랄 때에는 미국을 끌어들였다. 프랑스에서든 미국에서든 여론을 따르는 것은 멍청이 짓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우습게 보았다. 프랑스의 소도시와 미국을 둘다 나무란 것은 작자가 귀족적인 심리를 가진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 대목에서는 작자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말로 자기 생각을 나타냈다. 묵사에다 설명을 보태는 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계속 등장한 관찰자인 파리에서 간 여행자의 생각에다 보태서 자기 생각을 말했다. 비꼬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자가 직접 나서는 일이 그 뒤에도 이따금 있었다.

베리에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대한 언사는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주민 4분의 3 이상의 주민이 지닌 사고방식이 그 한 마디 말에 나타나 있다.³¹⁾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는 모든 우아스러운 면모란 지방의 풍속에서 단호하게 추방되었다. 사람들은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사기꾼들이 종교단체의 후원을 얻고, 위선이 자유주의 성향의 계급 안에서도 크게 만연했다. 권태가 갑절로 늘어났다. 독서하고 농사짓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즐거움도 없었다.³²⁾

그러나 그런 사실은 작품을 이루고 있는 지역배경과 시대배경일 따름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작품에 가져다 놓고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작품을 이루는 실질적인 내용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이다. 범속한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이 지역적·시대

31) 원문, 14면; 김봉구 역, 18면; 이동렬 역, 상, 10면. 원문은 : “Voilà le grand mot qui décide de tout à Verrières : RAPPORTER DU REVENU. A lui seul il représente la pensée habituelle de plus de trois quarts des habitants.”

32) 원문, 50면; 김봉구 역, 50면; 이동렬 역, 상, 57-58면. 원문은 : “Depuis la chute de Napoléon, toute apparence de galanterie est sévèrement bannie des moeurs de la province. On a peur d'être déstitué. Les frissons cherchent un appui dans la congrégation; l'hypocrasie a fait les plus beaux progrès même dans les classes libérales. L'ennui redouble. Il ne reste d'autre plaisir que la lecture et l'agriculture.”

적 의미를 가졌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원경을 설정했다.

등장인물 사이에서 미묘한 대결이 진행되고, 상황과 의식의 일치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 작자는 긴장된 대결을 손상시키지 않고 예민하게 관찰해 치밀하게 묘사하는 데 힘쓰고, 설명하거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독자가 등장인물과 함께 흥분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서술자는 냉철함을 잊지 않았다.

첫번째 큰 사건은 월리앙이 드 레날 시장 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되어 그 집에 가서 있는 동안에 시장의 부인과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여러 단계에 걸쳐 조성하면서 작자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자기가 소설을 쓰는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능청스러운 해설을 삽입했다. 판소리광대가 주인공의 운명이 좌우되는 심각한 사연의 청을 멈추고 자화자찬하는 수작의 아니리를 덧붙이는 것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귀부인이 가정교사와 정을 통하여 되는 사건이 파리에서라면, 파리 사람들은 그런 소설을 많이 읽고 소설에 쓰인 대로 행동하므로 간단하게 결판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사건이 남쪽 지방에서 일어났다면 더위 때문에 쉽게 과열되어 결정적인 국면이 바로 닥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자기가 다루는 사건은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³³⁾ 자기는 상투적인 내용으로 전개되는 연애소설을 쓰지도 않고, 정열에 들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인간심리를 치밀하고 진지하게 파악해나가고 있으니 끈기를 가지고 읽으라는 말이다.

시장, 시장 부인, 월리앙의 삼각관계는 동상이몽의 전형적인 예이다. 시장은 학식이 많은 월리앙을 가정교사로 두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기고자 했다. 자기는 월리앙을 멸시하고 부리면서도, 월리앙이 외부인과 접촉할 때에는 웃차림이나 말씨에도 신경을 써서 자기 품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라고 했다. 부인은 돈과 지위밖에 모르는 위인인 시장과 살아온 따분한 나날에 대한 회한과 반발 때문에 월리앙을 사랑하게 되었다. 월리앙은 시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부인을 유혹하고자 자아도취 때문에 정신을 잊을까 스스로

33) 원문, 44면; 김봉구 역, 45면; 이동렬 역, 상, 50면.

경계하면서 한 단계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자고 했다.

어느날 아침에 시장이 젤리앙에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거칠게 나무란 일이 있고서, 그 날 밤에 시장 부부가 데르빌(Derville) 부인이라는 손님과 함께 정원에 나가 앉아 한담했다. 젤리앙도 동참해서 부인 곁에 앉아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 세 사람의 동상이몽의 이면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다음과 같이 묘사 했다.

쥘리앙은 아침나절의 거친 소리가 귀에 생생했다. 바로 면전에서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이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작자를 조롱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젤리앙은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말겠다. 이 작자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내가 아닌가.

어울리지 않게 조용하게 있던 젤리앙은 그 순간 마음의 격동을 느꼈다. 드 레날 부인이 자기에게 은밀하게 손을 내밀었으면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 되었다.

드 레날씨는 분개한 어조로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베리에르에서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이 확실한 두세 사람이 선거에서 자기를 골탕먹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데르빌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젤리앙은 그 말이 지겨워, 자기가 앉은 의자를 드 레날 부인의 의사 가까이 옮겼다. 어둠이 그 모든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게 가려주었다. 젤리앙은 웃 밖으로 나와 있는 부인의 이름다운 팔 곁에 대담하게 자기 손을 가져다놓았다. 떨리고, 정신이 없어, 아름다운 팔에 자기 팔을 가져가더니, 대담하게 거기다 입술을 댔다.

드 레날 부인은 전율했다. 남편이 서너 발짝 떨어진 곳에 있는데, 자기 손을 젤리앙에게 서둘러 내주고, 동시에 젤리앙을 약간 떠밀었다. 드 레날씨가 부자가 되어가는 자고뱅파의 시시한 인간들에 욕설을 퍼붓고 있는 동안에, 젤리앙은 자기에게 내맡긴 손에 열렬하게 입맞추었으며, 실제야 어쨌든 드 레날 부인은 그렇게 느꼈다.³⁴⁾

34) 원문, 71-72면; 김봉구 역, 69면; 이동렬 역, 상, 87-88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Julian avait encore dans l'oreille les paroles grossières du matin. Ne serait-ce pas, dit-il, une façon de se moquer de cet être, si comblé de tous les avantages de la fortune, que de prendre possession de la main de sa femme, précisément en sa présence? Oui, je le ferai, moi, pour qui il a témoigné tant de mépris.

De ce moment la tranquillité, si peu naturelle au caractère de Julian s'éloigna bien vite; il désira avec anxiété, sans pouvoir songer à rien autre chose, que

이 대목에 서사시나 설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대단한 사건은 없고,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났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상황과 의식이 어긋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해서 긴장이 조성하고서, 개인의 일상사에 한 사회의 움직임이 집약될 수 있게 한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무척 큰 이야기를 하는 소설의 교과서라고 할 것을 마련했다.

부자와 가난뱅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기득권자와 반항자, 이해관계만 챙기는 남편과 마음이 공허한 아내 사이에서 벌어진 다면적인 갈등을 이처럼 짜릿한 느낌을 주는 연애소설을 써서 다룬 것이 비상한 재주이다. 스탑달은 그 점에서 크게 성공해 두고두고 평가된다. 소설 발달이 한 절정에 이른 19세기 중엽의 유럽에서 스탑달은 이 작품 『적과 흑』을 내놓아 그 절정을 장식했다.

『암소 바치기』

『암소 바치기』의 작자 프렘찬드(Premchand, 1880-1936)라는 필명을 사용한 인도 작가 드한파트 라이(Dhanpat Rai)는 1880년에 힌두교의 종교중심인 바라나시(Varanasi, Benares)에서 4마일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³⁵⁾ 글쓰는 일을 담당하는 카스트에 속했다. 그 신분에 맞게 페르시아

madame de Rénale voulut bien lui laisser sa main.

M. de Rénal palait politique avec colère : deux ou trois industriels de Vernières devenaient décidément plus riches que lui, et voulaient la contrarier dans les élections. Madame Derville l'écoutait. Julian irrité de ses discours, approcha sa chaise de celle de madame de Rénal. L'obscurité cachait tous les mouvements. Il osa placer sa main très près du joli bras que la robe laissait à découvert. Il fut troublé, sa pensée ne fut plus à lui, il approcha sa joue de ce joli bras, il osa y appliquer ses lèvres.

Madame de Rénal frémît. Son mari était à quatre pas, elle se hâta de donner sa main à Julian, en même temps de le repousser un peu. Comme M. de Rénal continuait ses injures contre les gens de rien et les jacobins qui s'enrichissent, Julian couvrait la main qu'on lui avait laisser de baisers passionés ou du moins qui semblaient tels à Madame de Rénal."

어와 아랍어 교육을 시골 마을에서 받으면서 자랐다.

11세 때 아버지가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 우체국 직원이 되었다. 대가족의 유대를 잊고 외롭게 살면서 가난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게 된 것이 프렘찬드에게 큰 충격이었다.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시기에 수백종의 우르두어소설을 읽었다”고 하고, “19세기말 우르두문학의 환상과 모험이 가득 한 낭만적인 기풍이 외로운 소년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었다”고 한다.³⁶⁾

15세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미 결혼을 한 프렘찬드는 계모와 아내 사이의 끝없는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며, 가족 전체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다. 학교 납입금을 내기 위해 외투를 전당잡혀야 할 정도였다. 1896년 16세가 되었을 때 대학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가정교사가 되어 한 달에 2 루피를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대학 진학에는 끝내 실패했다. 1905년 25세 때 불화를 거듭하던 아내와 헤어지고, 소녀 과부와 재혼했다. 재혼한 뒤에는 부부 사이가 좋아 행복을 누렸다. 아내는 프ਰ讫찬드의 충실한 협력자 노릇을 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1902년부터 2년 동안 알라하바드(Allahabad)에 있는 사범학교(Teachers' Training College)에서 공부해 교사자격을 얻고서도 취직을 하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했다. 1907년에 하미르푸르(Hamirpur)라는 소도시의 학교감독관 대리인 보조원(Sub-Deputy Inspector)으로 취직했다. 그 뒤 1920년에 간디가 주도한 비협력운동에 동조해 공직을 사임하고, 일시 물레를 파는 일을 하다가, 다른 직업은 얻지 못하고 글쓰는 일에 전념했다. 1919년 39세 때에 독학사 학위를 얻었다. 전통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영어를 익혀 근대학문에 입문했으며, 그 둘을 함께 활용했다. 톨스토이, 고르키, 빅토르 위고, 로맹 롤랑, 에밀 졸라, 딕킨스 등의 작품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는 우르두어로 창작을 했다. 1907년에 나와브 라이(Nawab Rai)라는 필명으로 『소제 바탄』(Soze Vatan)이라는 단편집을 출간했다. 거기 실려 있는 단편 5편이 영국 식민지통치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탄압

35) Suresth Renjen Bald, *Novelist and Political Consciousness, Literary Expression of Indian Nationalism 1919-1947* (Atlantic Highlands, New Jersey : Humanities Press, 1982), 59-95면에 의거해서 프렘찬드의 생애를 이해한다.

36) 같은 책, 62면.

을 받아, 책이 모두 회수되어 소각되었다. 당국의 주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 그 뒤에는 프램찬드라는 필명을 내세우고, 우르두어 대신에 힌디어를 사용했다. 장편소설 10권 외에 수많은 단편, 논설 등을 쓰고 문학잡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영화에도 손을 댔다. 그처럼 활성하게 활동했어도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어려서 농촌에서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평생 가난에 시달리는 처지였다. “생애의 대부분 기간 동안 빈곤이라는 악마와 더불어 살아야 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했다” 하고,³⁷⁾ “사채꾼과 전당포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다”고³⁸⁾ 한다. 그 때문에 빈부의 차이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삼고, 하층민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다수 등장시킨 소설을 써서 사회개혁을 위한 주장을 열렬하게 폈다.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돈에 대한 욕망이 모든 사람을 결박하는” 시대가 온 것을 개탄하고, 중세 때에는 억압이나 차별이 있었어도 “인간성은 파괴되지 않았다”고 했다.³⁹⁾ 자본주의의 해독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 이전 시골 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을 지녔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는 간디의 노선을 따르고, 사회개혁을 하는 데서는 간디주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했다.

1935년에 여전히 생업이 없고 빚에 시달리는 처지여서, 영화 대본을 쓰는 일을 맡으려 봄베이로 갔다. 그러나 돈벌이만 노리는 영화제작자들이 프램찬드의 참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봄베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농촌의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처럼 희생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인류 화합의 이상을 재확인하면서 『암소 바치기』를 써서 1936년에 출판했다. 그 작품이 출간된 지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작품을 보자. 호리(Hori)라고 하는 가난한 소작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자기 가족들, 형제, 주위의 사람들, 지주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지주와 다른 도시 상층민의 관계, 도시 기업인과 노동자의 관계도 문제삼았다. 그 사람들은 모두 서로 필요로 하면서 서로 이용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37) 같은 책, 74-75면.

38) 같은 책, 75면.

39) 같은 책, 75면.

적대적인 관계가 생긴다. 우호와 적대의 이중성, 원조와 가해의 이중성이 나타난다.

호리는 아내, 아들, 그리고 두 딸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면서, 생각이 막혀 있고 처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계속 반발을 샀다. 가끔 아내 다니야(Dhaniya)와 격렬하게 싸웠다. 아들 고바르(Gobar)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나누어주어 두 아우가 살 수 있게 했으나, 큰 아우 쇼바(Shobha)는 소극적으로, 작은 아우 히라(Hira)는 적극적으로 형에게 반발했다.

농민인 호리는 목축인인 비흘라(Bihola)보다 지체는 높고 재산은 모자라는 위치에 있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에는 우호와 적대, 원조와 가해의 이중성을 잘 나타낸다. 호리는 암소를 가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했다. 비흘라가 사료가 없어서 암소를 팔아야 한 딱한 사정임을 호소하자, 호리는 짚을 실어 준다. 비흘라가 암소를 외상으로 팔아 호리는 소원을 이루었다. 호리의 작은 동생이 자기에게 나누어줄 재산을 숨기고 형이 암소를 샀다고 오해해 암소를 죽이고 자취를 감추었다.

호리의 아들 고바르는 과부가 된 비흘라의 딸 주니야(Jhuniya)과 정을 통했다. 그 때문에 화가 난 비흘라는 호리에게 암소 값을 내라고 요구하다가, 호리의 황소를 그 대신 가져갔다. 도시로 나간 호리의 아들 고바르가 자기 딸 주니야와 함께 고향에 다니러오자, 비흘라는 호리의 황소를 되돌려 주었다. 고바르와 주니야는 도시에서 살아갔다. 고바르는 아내와 불화하다가 노동쟁의에 가담해 부상을 하고 아내의 극진한 간호로 살아나자 아내와 화합하게 되었다. 아들 내외는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마을의 유력자들은 호리를 괴롭혔다. 호리를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지주를 대리하는 마름 노릇을 하고, 호리의 아들과 비흘라의 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마을의 풍속을 해쳤다면서 벌금을 물렸다. 그 주동자는 고리대금업자를 겸하고 있는 사제자 브라만이다. 호리는 한 때 그 집 머슴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도 브라만의 종교적인 권위로 호리를 속박해 벌금을 물고, 죽을 때에 암소를 바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했다. 다타딘(Datadin)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마타딘(Matadin)이라고 하는 아들, 브라만 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다타딘은 젊어서 방탕하게 놀았으나, 종교적인 의례와 의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마타딘은 그 아비에 그 아들답게, 아비가 하는 대로 했다. 종교에서 긴요한 사항인 의식 거행, 단식, 경전 학습이고, 음식을 만들고 먹는 데 관한 금기 를 지키는 일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그런 긴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키는데, 누가 감히 제멋대로 논다고 시비할 것인가?

힌두교도들이 있으면 브라만이 있고, 브라만이 있으면 갖다바치는 것이 있다.⁴⁰⁾

마타딘은 천민처녀와 정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버려 더럽혀졌다고 하면서, 바라나시에 있는 유명하고 학식 많은 브라만을 찾아가 정화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 때문에 모두 7, 8백 루피가 소용되었으며, 소똥을 먹고 소 오줌을 마시는 의식까지 거행했다. 소똥은 정신을 순수하게 하고, 소 오줌은 영혼을 더럽게 한 병균을 죽인다고 했다.⁴¹⁾

마타딘에게 버림받은 천민여인은 호리에게 구출되어 그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낳아 길렀다. 마타딘은 호리 집을 몰래 찾아 버린 여인을 만나고 아들과 상면했다. 여인을 자기의 신이라고 하고, “생명이 있는 한 그대를 보호하고, 찬미하겠다”고 했다. “나는 브라만이 아닌 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⁴²⁾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달라진 바 없다.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살아간다.

도시에 거주하는 지주 라이 사히브(Rai Sahib)는 간디가 제창한 불복종 운동에 가담해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퇴해 전국적인 존경을 받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식민지당국자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교

40) 301-302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Datadin had been quite a profligate in his own youth, but he'd never neglected his religious rites and duties. Matadin, like worthy son, was following. The crucial elements of religion were ritual worship, fasts and scripture lessons, and observance of taboos about cooking and eating. When father and son held tight to these crucial elements, how could anyone have gall to call them wayward?
.....

As long as ther are Hindus, there'll be brahmans and there'll be payments to them.”

41) 414면.

42) 419면.

양인이다.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함께 ‘라마’(Rama)에 대한 신앙도 물려받아, ‘라마’를 섬기는 축제를 크게 거행했다.

호리가 불려가서 사정을 들어보니, 돈 쓸 곳이 너무 많아 가난한 소작인 보다 더욱 불행한 것처럼 보였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작인들을 들볶았다. 호리는 축제에서 배역을 맡은 다른 소작인들처럼 기부금을 내야 했다. 소작료를 미납한 소작인들은 불러다가 밥도 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켰다. 소작료를 내지 않으면 농사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래서 소작인은 빚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소작인을 괴롭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관리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자로 취급된다. 호화롭게 살지 않으면, 인색하다고 한다.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떨어야 하고, 관계당국에 달려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지닌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기르는 어린아이 같아, 겉으로는 살이 췄지만, 안으로는 허약하다. 쇠약하고, 가난해지고 있다.⁴³⁾

어떤 부당한 힘으로 재산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자. 지능, 성격, 미모, 재주, 그리고 힘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⁴⁴⁾

지주의 시대는 가고, 은행가의 시대가 오는 시대변화를 절감했다. 친척들에게 뜯기고, 자식들 때문에 근심했다. 많은 지참금을 주어 시집보낸 딸은 이혼을 하고, 아들은 자기가 혼인을 반대하는 처녀와 함께 영국으로 도망쳤다. “우리는 명목상의 지배자이고, 진짜 제왕은 은행가이다”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은행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손을 가졌다. 정부는 그 수중에 있는

43) 같은 책, 74면. 원문은 : “We’re forced to plunder our tenants. If we don’t give expensive gifts to the officials, we’re branded as traitors. If we don’t live in luxury, we’re called misers. At the slightest of progress, we start trembling and run to the authorities appealing for help. We no longer have an faith in ourselves or in our abilities. We’re like spoon-fed babies—fat on the outsides but weak inside. debilitated and impoverished.”

44) 75면. 원문은 : “By some unjust stratagem you might be able to get wealth distributed equally. But to distribute intelligence, character, beauty, talent and strength equally is beyond your power.”

꼭두각시이다”라고 했다.⁴⁵⁾

지주가 사는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호적이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각도로 형성되었다. 지주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은행가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기업인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노동쟁의를 유발하고, 노동쟁의는 진압했으나 공장이 불타서 망했다. 상층 사람들 남녀는 또한 서로 불화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는 관계를 이루었다. 투쟁과 화해가 작품에 등장하는 철학자의 연구 주제이다.

작품을 전개하는 방식은 대화와 서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서술에는 묘사도 있고 설명도 있다. 대화에는 상황과 직결되어 짧게 주고받는 것도 있고, 어느 누구의 의식을 길게 나타내는 것도 있다. 대화·묘사·설명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살피는 것이 작품 이해를 위한 긴요한 과제이다.

상황과 직결된 대화는 호리와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간단한 말을 하는데 뜻하는 바는 심각하므로 정신을 단단히 차리도록 한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 때문에 등장인물도 긴장하고, 독자도 긴장해야 한다. 도시의 상층 인물들이 한가롭게 주고받는 대화, 철학자의 강연, 철학자와 다른 사람이 주고받는 말은 긴박한 상황을 떠나서 길게 이어진다. 서로 대조가 되는 주장을 폐기도 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도 한다. 사람은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철학자의 지론이 그런 방식으로 제시된다.

제7장에서 도시 상층 인물들이 시골로 사냥을 나간 장면은 긴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대화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⁴⁶⁾ 둘씩 짹을 지어 숲 속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시 상층 인물들에 관해서 말했다. 목가적인 장면이 느리고 여유 있게 전개되는 동안에 동행한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45) 291면. 원문은 : “We’re rulers in name, but our bankers are the real rajas.”라고 하고, “Bakers have the ruling hand in the world today. Governments are just puppets in their hands.”

46) Meenakshi Mukherjee, *Realism and Reality, the Novel and Society in India* (Delhi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151-154면에서 이에 대해 잘 다루었다.

(1) 여의사 말티(Malti)와 철학자 메흐타(Metha)의 동행에서는, 젊고 건강한 시골처녀가 출현해서 매마른 지식인 처녀와 좋은 대조를 보여주면서, 천연스러움이 복잡한 지식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

(2) 라이 샤브와 칸나(Khanna)의 동행에서는, 지주와 자본가를 대조해 보여주었다. 자본가는 지주에게 “당신은 도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했다.⁴⁷⁾ 땅에서 나오는 소출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다.

(3) 탄카(Tankha)와 미르자 쿠르세드(Mirza Khurshed)의 동행에서는 변호사이면서 브로커인 탄카의 허위와 이슬람 상인의 진실된 삶을 대조했다. 한쪽은 언제나 우세한 쪽에 가담하면서도 후회하고 우려하는 바가 많으며, 다른 쪽은 누구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잘 어울리면서 후회도 우려도 없고 낙천적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제8장에서는 다시 참혹한 현실로 돌아가서, 긴박한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하층민의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전근대에 속박되어 있는 인물들의 사정은 근대문학의 수법을 사용해서 부각시켰다. 모든 것이 연쇄적인 필연이고, 우연은 없다.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긴박한 사태이다. 소작료 갚기 전에는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지주의 명령을 마름이 전달하고 집행해서, 소작인들은 빚을 얻어야 했다.

호리가 재산 분배를 공정하지 못하게 했다고 의심해 동생이 암소를 죽이고 자취를 감추었다. 동생의 일 때문에 호리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다. 아내는 동생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호리는 동생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아들도 어머니에게 동조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순경이 와서 동생의 집을 수색하려고 하자 돈을 주어 무마해야 했다.

묘사는 상황에 직결되어 있다. 묘사를 할 때에는 작자의 시선이 상황에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설명은 작품 속의 상황에서 떠나 있는 작자의 견해이다. 경치를 말할 때 묘사에서 설명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사회상황을 크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묘사에서 설명으로 넘어간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거

47) 111면. 원문을 들면 “You’re able to lead an ascetic life But I’m not.”라고 했다.

시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작가가 뜻하는 바를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고 설명을 통해서 나타나내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다.

인물의 의식과 상황은 어긋날 수 있다. 독자는 의식과 상황을 대조해서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의식은 제한되어 있고, 독자의 의식은 열려 있다.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 상황, 의식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선량한 의식과 험악한 상황의 관계가 지속적인 문제이다. 악인이 개심해서 선인이 되어도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호리는 선량한 마음씨, 전통존중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표면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이다. 아내와 아들은 상황과 의식을 일치시키려고 하지만, 호리는 그렇지 못하다. 호리의 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자연과 화합하면서 지내왔다. 나무에는 사람이 먹을 과일이 열린다. 들에서 자라는 곡식으로 온 세상 사람이 살아간다. 암소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우유를 만든다. 구름이 비를 뿌려 대지를 적신다. 그런 체계에는 사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호리는 다른 사람들 집이 불타는 데서 자기 손을 쪼이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농부이다.⁴⁸⁾

아버지의 생각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은 고바루와 아버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신은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창조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 신은 사람을 크게 만들고 작게도 만들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참회와 현신에 대한 보상이다. 부자는 전생에 선행을 한 덕분에 행복을 누린다. 우리는 선행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즐거움을 기대한단 말인가?”

48) 위의 책, 21면. 원문은 : “But he also spent his whole life co-operating with nature. Trees produced fruit for men to eat. Fields produce grain which feeds the world. Cows produce milk - not for themselves, for others to drink. Clouds produce rain which quenches the earth. In such a system there're no room for petty selfishness. As a farmer, Hori had been taught that one doesn't warm his hand on the flames of another man's burning house.”

“그런 수작은 변명일 뿐이에요. 신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힘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을 때려눕히고 부자가 된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상전님은 하루에 네 시간 동안이나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

“누구의 노력 덕분에 찬미기를 부르고, 자비를 베푸는가요?”

“물론, 자기의 노력이지.”

“아니예요. 농민과 노동자의 노력이지요. 죄 많은 돈을 다 삼켜버리기 곤란해서, 자비도 배풀고 신을 찬미하기도 하는 거예요.”⁴⁹⁾

아들이 부정한 행실을 저지르고 도망친 다음 아들 때문에 임신한 처녀가 자기네보다 하위의 카스트인데도 집안에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브라만 주제하에 마을 유지들이 회의를 해서 호리에게 벌금을 물게 했다. 호리는 그 처분을 받아들이고, 아내 다니야는 반발했다. “우리는 카스트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카스트가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아요”라고 아내가 말하자,⁵⁰⁾ 호리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우리는 모두 카스트 안에 들어 있어,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처벌을 내려도 받아들여야 한다.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을 매는 것이 낫다. 우리가 오

49) 같은 책, 31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Well, God created us all equal.’

‘That’s not so, son. God created men great or small. Wealth is a reward for penance and devotion. Those rich people are enjoying happiness because of their good works in the last life. We build up no merit, so how can we expect pleasures now?’

‘Those are just excuses. God created all people equal. But when someone gets hold of a little power, he beats down the poor and becomes rich.’

‘That’s where you’re wrong. Even now the master spends four hours a day singing hymns to God.’

‘But whose labour supports that hymn-singing and charity-giving?’

‘His own, of course.’

‘Oh no - the work of farmers and labourers. But he has trouble digesting that sinful money. That’s why he has to give out charity and singing hymns to God.’”

50) 같은 책, 158면. 원문은：“We don’t have to stay in the caste - staying in the caste won’t bring us salvation.”

늘이라도 죽으면 우리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몸을 화장해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카스트에 달렸다.⁵¹⁾

호리는 카스트에 부여된 임무를 지키고, 종교적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했다. 악행을 일삼고 계속 피해를 끼쳐도 브라만은 신성해서 종교적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브라만을 통해서 신을 섬겨야 한다고 했다. 호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상대대로 지녀온 신앙심이므로 그릇된 판단에 대한 책임이 호리 자신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줄 모르는 것은 자기 잘못이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가 탐욕을 키워 브라만이 간교해지고 지주는 전에 없던 권한을 가지고 수탈을 늘였다.⁵²⁾ 그래서 소작인에게 정신적 마비와 물질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

아들 고바르는 아버지가 순종하면서 사는 데 반발하고, 결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내를 얻고, 도시로 나가 자기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했으며, 노동쟁의에 가담해 격렬하게 싸웠다. 그런데 아내와 불화했다가, 부상을 해서 돌아와 아내가 극진하게 간호하자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다음과 같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했다.

인생관을 온통 바꾸고자 해서, 빙정댐을 버리고 친절을, 자만심 대신에 겸손을 간직했다.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임을 알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⁵³⁾

51) 같은 책, 159면. 원문은 : "We're all bound to the caste, and we can't break away from it. We must bow to whatever punishment they give. It would be better to hang ourselves than to live so shamelessly. If we die today, the people of our caste would carry our bodies to the pyre. Our salvation depends completely on the caste."

52) 인도 농민의 빈곤이 전통사회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영국의 식민지통치와 더불어 지주의 소작인 지배가 확립되어 소작인을 파멸시켰다. Peter Heehs, *India's Freedom Struggle 1857-1947* (Delhi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0-21면에서는 농민의 소득이 8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53) 같은 책, 350면. 원문은 : "He would completely alter his life so that kindness would replace bitterness and humility would replace pride. He realized now that the opportunity to be of service was a great privilege, and he would never again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장 밑바닥의 피해자가 무슨 자만심이 얼마나 있어서 버려야 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기만 한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상황의 심각함을 덜 느끼는 사람들은 의식에 관한 논란을 거듭하고, 의식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쪽 끝에 철학자 메흐타와 여의사 말티가 있다. 그 두 사람은 유럽 추종에서 인도의 전통 존중으로, 경쟁의식에서 화합의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견해차이를 해소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메흐타는 “모든 시도를 하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갖가지 철학을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 직접 행동을 하든 행동을 하지 않든, 봉사하는 길이야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⁵⁴⁾ 그 점에서 인류는 하나라고 했다. “인류사회의 저변을 투시하면, 불쾌한 것들 아래에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⁵⁵⁾ 하고, 삼년 동안 작업을 한 결과, 메흐타는 세계 전체의 철학적 진리를 총괄하는 방대한 책을 다 썼다고 했다.⁵⁶⁾

자기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하고, 재산이나 명성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순수한 영혼을 잃는다고 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티에게 감화를 주어 새 사람이 되게 했다. 말티는 가난한 환자를 친대하다가 가난한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가난한 환자는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다.⁵⁷⁾ 그

neglect such an opportunity.”

54) 같은 책, 373면. 원문 : “After trying everything and carefully investigating various schools of philosophy, he had concluded that the path pf service, lying between those of activity and inactivity, was the only thing that could make life meaningful.”

55) 같은 책, 404면. 원문은 : “below the unpleasantness there was sacrifice, there was love, there was courage and there was endurance.”

56) 같은 책, 411면.

57) 179면.

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진료했다.⁵⁸⁾ 가여운 아이를 키우고, 농촌 사람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했다.

사람의 본성은 선량하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대등하다고 했다. 대가나 평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가장 값지다고 했다. 그런 본성을 어기고 악행을 한 사람이라도 곤경을 겪고나면 반성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브라만의 청년은 천민 쳐녀를 유혹해서 임신하게 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브라만은 브라만이고, 천민은 천민이다.

브라만을 통해 신을 믿고, 자기 카스트에게 부과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한 주인공 호리는 아무런 위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죽으면서 그하면서 평생토록 소원했으나 끝내 가지지 못한 암소를 죽고 나서 브라만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여겨, 유언을 남겨 당부했다. 그 의식이 ‘암소 바치기’라고 번역한 ‘고단’(Godaan)이다. 그 대목을 살펴보자. 호리는 암소를 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판에 나가 무리하게 일하다가 쓰러졌다. 쓰러져 죽으면서 아내 다니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소에 대한 소망은 소망으로 남는구나. 이 돈을 마지막 의식에 써다오. 울지 말아라, 다니야. 나를 얼마 동안이나 살려둘 수 있겠나? 나는 모든 불행을 견디 어내려고 했다. 나를 죽게 내버려놓아다오.⁵⁹⁾

그 뒤에 있었던 일도 들기로 한다.

히라가 울면서 말했다. “정신 차리세요. 암소를 바칩니다. 형님은 가십니다.”⁶⁰⁾ 다니야는 돈을 남편의 차기운 손바닥에 가져다 놓고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타딘에게 말했다. “어르신네, 저희 집에는 암소도 송아지도 돈도 없습니다. 여기 있

58) 403면.

59) 같은 책, 436면. 원문은 : “The longing for a cow has had to remain longing. And now that money will go for the last rites. Don't cry, Dhaniya. How much longer could you have kept me alive anyway ? I've suffered every possible misfortune. Now let me die.”

60) 같은 책, 436면. 원문은 : “Hira said, weeping. 'Make the gift of a cow. Dada is leaving us now.'”

는 동전 몇 잎뿐이예요. 이것이 그이의 '고단', 그이가 바치는 암소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⁶¹⁾

호리는 공사판에서 쓰러져 죽으면서도 브라만에게 암소를 바치는 '고단'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하자,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아우와 아내가 호리의 소원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받들고자 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아내마저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처절한 장면에서 끝나서 이 작품은 안이한 희망을 거부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사람의 본성은 선량한 것과는 별도로 현실은 혹독하다. 농민이 아무리 애써도 농사 지은 성과가 지주와 사채꾼에게 다 돌아가고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원망을 하지 않는 '恒民'이든,⁶²⁾ 그 때문에 분노하는 '怨民'이든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시노동자는 '豪民'이 되어 파업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으며, 농촌에는 '豪民'의 향거가 없다.

혹독한 현실을 해결할 길이 없다. 악인이 개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악인의 개심은 예외적인 일이다. 구조 자체는 개심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프렘찬드는 사람은 마땅히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사실적인 소설을 썼다.

『울지 마라, 아이야』

『울지 마라, 아이야』의 작자 은구기(Ngugi, 1938 -)는 켄야의 수도 나이로비(Nairobi) 가까이 있는 리무루(Limuru)라는 곳에서 태어났으며, 기쿠유(Gikuyu 또는 Kikuyu) 민족에 속했다. 민족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

61) 같은 책, 437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Placing the money in the cold palm of her husband's hand, she stepped forward and said to Datadin, "Maharaj, there is no cow nor calf nor money in the house. There are only these few coins. this is his *godaan*, his gift of a cow." And she collapsed on the ground, unconscious."

62) 許筠이 「豪民論」에서 사용한 용어를 가져오면 논의가 선명해진다.

교에서 공부한 다음 기독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동아프리카 유일의 대학인 우간다의 마케레(Makerere)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1965년에 영국 리즈(Leeds)대학에 유학하고, 1968년에 나이로비대학의 강사가 되었다.

정부의 대학 간접에 항의해 1969년에 강사를 사임하고 미국의 노스웨스턴(Northwestern)대학에서 가서 연구하면서 강의했다. 1971년에 귀국해서는 나이로비대학의 교수가 되고 영문학과 학과장의 일을 맡았다. 그 때 학과 이름을 문학과(Department of Literature)로 바꾸고, 아프리카문학을 중요시해서 다루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제임스 은구기(James Ngugi)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작품을 발표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아프리카인 고유의 성명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은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언어로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유럽문명을 따르면서 비판하고,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과 함께 식민지 지식인의 자각을 얻었다.⁶³⁾

영문학 교수 노릇을 하다가 영어로 소설 써서 영국에서 출판해 세계 전역에 내다 파는 작가가 되었다.⁶⁴⁾ 작품에서 다른 내용에서는 아프리카의 작가이고, 활동무대에서는 전세계 영어권의 작가이다. 켄야의 정치를 비판하는 작품을 쓰다가 탄압받고, 영국으로 이주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울지 마라, 아이야』는 우간다의 마케레대학 재학중에 쓴 작품이다. 그 대학에서 아프리카역사는 유럽역사의 연장으로 취급하고, 아프리카와는 무관한 유럽의 문학만 강의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면서,⁶⁵⁾ 아프리카의 현대사를 켄야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전쟁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다루는 소설을 썼다. 그러나 사용한 언어는 영어이고, 영국의 출판사에

63) 그 점에 관해서 Carol Sicherman, "Ngugi's British Education", Charles Cantalupo ed., *Ngugi Wa Thiong'o : Texts and Contexts* (Trenton : Africa World Press, 1995)에서 밝혀 논했다.

64) Henry Chakava, "Publishing Ngugi : The Challenge, the Risk, and the Reward", Charles Cantalupo ed., 같은 책에서 은구기의 책의 출판 경위에 대해서 고찰했다.

65) G. D. Killam,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of Ngugi* (London : Heineman, 1980), 2면.

서 맡아주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1964년의 『울지 마라, 아이야』에서 1977년의 『피의 꽃잎』(Petals of Blood)에 이르기까지 은구기가 쓴 일련의 작품을 낸 하이네만(Heineman) 출판사는 아프리카문학을 전문으로 내는 영국의 출판사이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켄야에도 진출해 있었다. 출판 실무는 켄야의 지사에서 담당하면서, 현지인인 편집자가 원고를 다각도로 검토해 저자가 수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어 사용에 회의를 가지고, 자기 언어 기쿠유어로도 작품을 써서 출판하고자 했으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기쿠유어는 켄야 안에서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이고, 정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영어는 모르고 기쿠유어만 알아 기쿠유어로 출판된 책을 원하리라고 생각되는 예상독자인 시골 농민은 교육 수준이 낮고 구매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판로가 없고, 광고를 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 그런 난관을 뚫고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창작을 계속 시험하는 데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⁶⁶⁾

은구기는 이 작품에서 은조르게(Njorge)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은조르게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좋아하는 데서 시작해서, 고등학교 중퇴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공부하는 것에 큰 희망을 두었다가 좌절한 이야기이다. 독립전쟁이 일어나 아버지와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다. 작자 자신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하고, 독립전쟁 때문에 가족의 참사를 겪지는 않았다. 자기는 좌절을 넘어섰으면서 좌절한 아이를 통해서 모두 함께 겪은 고난을 다루었다.

은조르게의 아버지 은고소(Ngotho)는 출세한 흑인 야코보(Jacobo)의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살고, 백인 농장주 하우랜즈(Howlands)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다. 농장주와 일꾼 두 사람이 동행해 농장을 돌아보면서 흐뭇한 심정을 함께 가졌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며 서로 돋는 관계가 나타나 있다. 그 이면에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는 감추어져 있었다. 우호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가 표리를 이루었다. 우호적 관계가 클수록 적대적 관계도

66) 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가는 Ngugi wa Thiong'o, *Decoloniz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 James Currey, 1981); 이석호 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문학』(서울 : 인간사랑, 1999)에서 밝혀 논했다.

컸다.

백인 한 사람과 흑인 한 사람이 이곳 저곳을 다녔다. 이따금 여기 저기서 멈추어, 텁스럽게 자란 차나무를 바라보고, 잡초를 뽑았다. 두 사람 다 농장을 보고 찬탄했다. 은고소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책임을 느꼈다. 이 농장을 지키는 것이 자기 가계의 선조, 생존자, 후손 모두의 임무라고 여겼다. 하우랜즈씨는 농장을 죽 돌아볼 때에는 얼마만큼의 승리감을 느꼈다.⁶⁷⁾

나라를 되찾는 투쟁이 일어나자, 은고소의 아들이고 은조르게의 형인 보로(Boro)는 무장투쟁에 가담해서 자코보를 죽였다. 은고소는 아들 대신에 죄를 쓰고 잡혀가서 하우랜즈에게 고문을 당했다. 그 때에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

하우랜즈는 정부 관리나 백인의 행세가 으레 그렇듯이, 법률을 손에 넣고 주물렀다. 이 사람에게서 모든 정보를 캐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은고소를 매일 구타했다. 하우랜즈는 은고소를 정복해 굴복시키고 싶었다.⁶⁸⁾

고문을 당한 끝에 은고소는 죽었다. 보로가 나타나 하우랜즈를 죽이고, 체포되었다. 적대적인 관계가 극도로 확대되어 가족이 파열했다. 투쟁에 나서지 못한 은조르게는 자기가 겁장이라고 자책하는 것이 작품의 결말이다. 처음에는 은조르게가 야코보의 딸 음위하키(Mwihaki)와 함께 학교에 다

67) Ngugi, *Weep Not, Child* (London : Heinemann, 1964), 31면; 은구기 와 씨옹오, 김윤진 역,『아이야 울지 마라』(서울 : 지학사, 1986), 46면. 원문은：“They went from place to place, a white man and a black man. Now and then they would stop here and there, examine a luxuriant green tea plant, or pull out a weed. Both men admired this shamba. For Ngotho felt responsible for whatever happened to this land. He owed it to the dead, the living and the unborn of his line, to keep guard over this shamba. Mr. Howlands always felt a certain amount of victory whenever he walked through it all.”

68) 원문, 119면. 김윤진 역, 153면. 원문은：“Mr. Howlands had, as was the usual practice with government agents and white men, taken the law into his hands. He was determined to elicit all the information from the man. So he had Ngotho beaten from day to day. For Mr. Howlands was determined to conquer and reduce Ngotho to submission.”

니고, 오누이처럼 지내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모든 갈등을 넘어섰다.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처지가 서로 다르고, 아버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음위하키의 아버지가 은조르게의 형에게 살해되어, 두 사람이 헤어져야 했다. 그 이유가 두 집안 사이의 불화에 있지 않고, 켄야에 대한 영국의 지배 때문에 빚어낸 비극임을 알아차리도록 독자를 유도했다.

대화와 서술을 함께 사용하면서 작품을 전개한 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대화는 짧게 주고받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길게 이어지는 말이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서술을 하면서 묘사에 힘쓰고 설명은 되도록 줄였다. 묘사에는 장면묘사도 있고 심리묘사도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은조르게의 어머니 니요카비(Nyokabi)가 아들을 부른 장면을 보자.

니요카비가 아들을 불렀다. 그 여자는 체구가 작고, 머리가 벗어졌어도 얼굴은 근엄했다. 생명감이 넘치면서 온화한 작은 눈을 보면, 전에는 미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는 형편이 좋지 않아 아름다움이 남아나질 못했다. 그래도 니요카비는 충만한 미소, 어두운 얼굴을 밝혀주는 충만한 미소를 지녀왔다.

“너 학교에 가고 싶으니?”

“네 어머니!” 은조르게는 대답하면서 숨이 차다. 어머니가 한 말을 취소할까 반쯤 두려웠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잠자코 있었다.

“우리는 가난하단다. 너도 알다시피.”

“네, 어머니.” 가슴이 두근거려 늑골이 약간 울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다른 애들처럼 점심은 싸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알아요.”⁶⁹⁾

69) 원문 3면; 김윤진 역, 13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Nyokabi called him. She was a small, black woman, with bold but grave face. One could tell by her small eyes full of life and warmth that she had once been beautiful. But time and bad conditions do not favour beauty. All the same, Nyokabi had retained her full smile - a smile that lit up her dark face.

‘Would you like to go to school?’

‘O, mother!’ Njorge gasped. He half feared that the woman might withdraw her words. There was a little silence till she said.

‘We are poor. You know that.’

‘Yes, mother.’ His heart pounded against his ribs slightly. His voice was shaky.
‘So, you won’t be getting a mid-day meal like other children.’

저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장면을 묘사하기만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어리지만 사려 깊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들 은조르게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적절하게 처신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로 나타내지 않고 안에다 간직했다.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한 은조르게의 반응은 어머니에게 한 말, 표정으로 나타낸 생각, 혼자 하는 말, 속생각, 눈앞에 환상으로 나타난 잠재의식, 이 다섯 층위에 걸쳐 세밀하게 묘사했다. 장면묘사에서 심리묘사로 나아가, 부모에 대한 아이의 독자성과 함께 상황에 대한 의식의 독자성을 나타냈다.

일하러 나가는 은고소는 상쾌한 아침, 이슬을 사랑스럽게 느낀다. “온 나라가 조용할 때 경작된 땅을 지나서 혼자서 걸어가노라면 때때로 뚜렷한 이유 없이 ‘무룬구’(Murungu)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⁷⁰⁾ 했다. ‘무룬구’는 조물주이다.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조물주를 향해서 나타내는 조상들의 오랜 관습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거쳐 도시로 갔다. 자연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농민의 본심이다. 그런데 본심을 왜곡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제1부 「사그레진 빛」(Waning Light)과 제2부 「어둠이 내리다」(Darkness falls) 사이에 「간주곡」(Interlude)라는 대목이 있어, 중간의 경과를 말했다. 그 대목은 다섯 단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셋에서는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말을 엿들은 듯이 적었다. 넷째 단장에서는 민족의 지도자 조모(Jomo)가 체포되었다고 도시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을 전했다. 다섯째 단장에서는 그 일에 대한 은조르게의 실망을 나타냈다. 설명은 배제한 묘사로 시대분위기와 사태의 추이를 나타냈다.

길게 이어지는 말에는 아버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가 있다. 천지 개벽을 한 뒤에 조물주 ‘무룬구’가 인류의 시조인 남녀를 만들고 살 곳을 마련해주었다. 그런데 백인이 찾아와 땅을 차지했다. 첫 번째 큰 전쟁이 일어나서

‘I understand.’”

70) 원문, 28면; 김윤진 역, 42면. 원문은 : “At times he was thankful to Murungu for no apparent reason as he went through these cultivated fields all alone while the whole country had a stillness.”

영국인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보답이 없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소작인이 되었다. 백인들이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이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⁷¹⁾

그러자 듣고 있던 아들 보로가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 땅을 빼앗은 사람 밑에서 일을 계속하실 수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그 놈을 섬길 수 있나요?”라고⁷²⁾ 말했다. 아버지는 창세신화에서 연결시켜 백인이 침공하고 수탈한 사실을 말했는데, 아들은 과거를 과거로 두지 않고 현재를 문제삼아 백인의 수탈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길게 이어지는 말이 짧고 긴장된 대화로 바뀌었다.

『간주곡』이 끝난 바로 다음 대목에서는, 아프리카 해방군의 지도자 데단 키마시(Dedan Kimathi)의 활약상에 관해 알려주었다. 데단은 자기를 잡으러온 경찰을 농락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소년이 신나게 하는 이야기를 은조리개는 듣고 감탄했다. 의심나는 대목에서는 질문을 하고서도, 다음과 같은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다.

데단은 무엇으로든지 변신할 수 있다. 백인으로도, 새로도, 나무로도, 비행기가 될 수도 있다. 큰 전쟁에서 익힌 재주이다.⁷³⁾

길게 이어지는 말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다. 현실과 직결되는 일이라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듯이 전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러다가 실제의 상황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누가 혼자 말하지 않고,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작품은 한참 동안 은조리개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은조리개는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다. 공부를 하면 백인과 대등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장차 영국에까지 가서 유학하기를 희망했다. 부모도 은조리개의 공부에 희망을 두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

71) 원문 23-26면; 김윤진 역, 38-40면.

72) 원문 27면; 김윤진 역, 41면. 원문은 : “How can you continue working for a man who has taken your land ? How can you go on serving him?”

73) 원문 68면; 김윤진 역, 89면. 원문은 : “Dedan can change himself into everything - a white man, a bird, or a tree. He can also turn himself into an aeroplane. He learnt all this in the Big War.”

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아들이 편지도 쓰고, 셈도 하고, 영어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머니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보람이었다. 그러면 백인의 부인이나 지주의 부인과 대등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은조르게가 백인이 공부한 것을 다 알면 백인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기대했다. 아버지는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좋은 교육이다”고⁷⁴⁾ 했다. 은조르게는 자기네 조상이 공부를 하지 않아 땅을 빼앗겼다고 믿고, 음위하기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옛날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옛날 사람들이 왜 백인들이 올 때 공부한 것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⁷⁵⁾

영어를 익히는 것과 함께 기독교를 믿는 것이 공부의 두 가지 기본내용이었다.

흑인들의 투쟁이 일어나자, 은조르게는 민족의 지도자 조모는 흑인들의 모세이라고 했다. 기쿠유 신화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조를 기독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와 동일시하고, 인류는 모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흑인은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흑인의 모세 조모가 자기 민족을 선두에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은조르게의 의식은 차차 깨어났으나, 언제나 긴박한 상황보다는 뒤떨어지고 느슨했다.

의식의 중심을 옮겨가면서 다른 사람의 경우도 문제삼았다. 아버지 은고소의 의식 또한 상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민족지도자 조모가 재판에서 패배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원통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첫째 아내가 백인들이 만든 법으로 재판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변호사라고 해도 당해낼 수 없다고 했다. 보로는 흑인은 일어나

74) 원문 39면; 김윤진 역 55면. 원문은 : “Education was good only because it would lead to the rediscovery of the lost lands.”

75) 원문 37면; 김윤진 역 53-54면. 원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I wonder why our old folk, the dead old folk had no learning when the white man came?”

“There was no body to teach them English.”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의식의 각성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로는 의식이 상황에 비해서 너무 격화되어 있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어 의식과 상황이 일치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의식이 깨어나자, 아버지는 상황과 격렬하게 부딪치다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해서 서슴지 않고 행동했다. 그런데 은조르게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기를 비겁자라고 자책했다.

의식과 상황이 어긋나는 것은 백인쪽도 마찬가지였다. 의식의 중심을 그 쪽으로도 옮겨 의식과 상황의 불일치를 문제삼았다, 하우랜즈는 자기 농장을 영구히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흑인을 굴복시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조르게가 진학한 고등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홀륭한 것은 오직 백인에게서 유래한다고 믿었다. 아이들이 이 백인의 문명을 인류 특히 흑인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알아 본뜨고, 숭배하도록 가르쳤다. 백인이 통치를 하고 문명화하는 사명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작용하는 모든 흑인 정치꾼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했다.⁷⁶⁾

긴박한 상황 때문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 백인 쪽의 착각도 무너뜨렸다. 백인 군인과 경찰은 고문과 학살을 일삼아 백인문명의 우월성을 스스로 부인했다. 다소 무리한 방법이라도 써서 일부 불량한 선동자만 잘 다스리면 세상이 평온해지리라는 기대는 헛되었다. 흑인에 대한 지배를 계속해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다. 그 점을 명백하게 하면서 민족해방투쟁은 거대한 승리를 확보했다.

백인의 지배는 그 정당성을 어떤 말로 합리화하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므로 마땅히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흑인은 피압박의 처지에서 벗어나

76) 원문 115면; 김윤진 역 148면. 원문은 : "But he believed that the best, the really excellent could only come from the white man. He brought his boys to copy and cherish the white man's civilization as the only hope of mankind and especially of the black races. He was automatically against all black politicians who in any way made people to be discontented with the white man's rule and civilizing mission."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작품은 알려준다. 민족해방운동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⁷⁷⁾ 소설을 처음 써서 세계문학사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다. 뒤떨어진 곳에서 앞선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입증했다.

항거의 주역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백인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백인처럼 문명인이 되는 것을 동경하던 어린이의 관점에서 작품을 진행해 커다란 효과를 거두었다. 험악하게 돌아가는 사태의 놀란 듯이 관찰해 진실을 깨닫는 의식의 각성을 어떤 독자라도 함께 경험하게 해서 설득력을 크게 높였다. 주제 못지 않게 수법이 훌륭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아 흑인은 열등하다는 편견을 속속들이 뒤집었다.

비교 고찰

『사씨남정기』·『적과 흑』·『암소 바치기』·『울지 말라, 아이야』는 이루 어진 시기가 각기 1689년경, 1830년, 1936년, 1964년이다. 전체 기간은 17세기말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약 2세기반 동안이다. 그 기간 동안에 소설이 생겨나고 변모했다. 『사씨남정기』와 『적과 흑』 사이에는 130여년, 『적과 흑』과 『암소 바치기』 사이에는 106년, 『암소 바치기』와 『울지 말라, 아이야』 사이에는 28년의 간격이 있다. 선후의 작품 사이의 시대적 간격을 차차 좁혀, 소설 변모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네 작품의 작가는 소설을 써서 유통한 방식과 수입을 얻은 정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졌다. 그 점을 들어 소설사가 전개되어온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소설의 작자는 작품 창작해서 읽히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소설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처음에는 앞의 성향이 두드러지다가 나중에는 뒤의 성향이 확대된 것이 널리 확인될 수 있는 변화이다.

77) Robert B. Edgerton, *Mau Mau, an African Crucible* (London : I. B. Tauris, 1990); A. Ogot and W. R. Ocheng ed., *De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in Kenya 1940-93* (London : James Currey, 1995) 등에서 정리해 논한 민족해방투쟁 과정의 핵심적 사항을 정확하게 집약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나타냈다.

김만중이 살았던 시기에는 상업이 일어나면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탐욕이 커져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충족시키려는 풍조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특징이다. 『사씨남정기』에서 문제삼은 사회상이 바로 그것이다. 김만중은 근대의 직업작가로 활동할 수 없었고 그럴 생각을 가지지도 않았으나, 작품에서 다룬 사회상은 중세에서 머무르지 않고 근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스탕달과 프렘찬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작가라로 해야 할지 근대작가라고 해야 할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스탕달은 공직생활을 하는 겨를에 광범위한 문필활동을 하다가 소설도 쓴 점이 김만중과 상통하고, 근대의 직업작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프렘찬드는 근대의 직업작가로 살아가고자 했으나 자기가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가 식민지 상태에 있고 근대화되지 않아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은구기는 근대작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나, 근대화된 사회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은구기가 소속된 사회는 근대화되지 않아,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그 속에 활동해서는 근대의 직업작가 노릇을 할 수 없으므로, 활동영역을 밖으로 확장해 근대의 직업작가가 되는 길을 택했다.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에 상품가치가 커져서, 지구 전역을 시장으로 하는 다국적 자본주의의 유통망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근대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써서 전세계를 장악한 선진자본주의의 상품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그 두 세계에 걸쳐서 살아간다.

그러한 사실은 김만중·스탕달·프렘찬드·은구기가 모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작가임을 입증해준다. 네 사람이 모두 중세와 근대에 걸쳐 있는 사회에 살면서, 그 양쪽이 충돌하는 문제를 다룬 작품을 써서, 비영리적인 유통과 영리적인 유통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그러므로 근대소설이라야 소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버려야 한다. 근대사회가 되기 전에, 근대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들어섰으면서도 근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중세와 근대의 양면성을 지닌 작가들에 의해 소설은 이미 충분히 발달하고 성숙했다.

소설에서 다룬 내용을 보자. 『사씨남정기』에서는 엄승이 횡포를 부려 나라 전체에 위기가 오고, 『적과 흑』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암소 바

치기』에서는 노동자들이 과업을 일으키고, 『울지 말라, 아이야』에서는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을 얻기 위한 무장투쟁이 전개된다. 그러나 그런 심각한 사태는 전면에 나와 있지 않고, 스치고 지나가는 배경을 이룬다.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집단의 투쟁보다 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갈등을 그리는 데 힘쓰는 것이 네 작품의 공통된 특징이다. 개인이 겪은 사소한 일을 그런 배경에 비추어 이해하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갑)과 (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작품의 주축을 이룬다.

(갑)

- 『사씨남정기』의 엄승과 유연수
- 『적과 흑』의 라몰 후작과 드 레날 시장
- 『암소 바치기』의 라이 샤히브
- 『울지 말라, 아이야』의 하우랜즈와 야코보

(을)

- 『사씨남정기』의 교씨, 동청, 냉진
- 『적과 흑』의 철리앙
- 『암소 바치기』의 호리와 고바르,
- 『울지 말라, 아이야』의 은고소와 은조르게

(갑)과 (을)은 서로 필요로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공존하고 있지만, 우호적인 관계의 다른 일면이 적대적인 관계이므로 대립하고 투쟁한다. (갑)이 등급에 따라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을) 또한 여럿일 수 있다. (갑)끼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을) 안에서는 우호적인 관계가 두르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갑)은 권력을 가지고 부유하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공직을 맡았다는 말이다.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씨남정기』의 엄승과 유연수는 공직을 맡고 있다고만 하고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점에 관해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문제도 생기기 않았기 때문이다. 관직을 이용해서 얻은 부를 토지에다 저장해 증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관직을 사는 무리는 그런 계산을 하고 투자

를 했다.

『적과 흑』의 드 레날은 공장을 경영해 돈을 번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공직을 얻고, 자기 저택을 대폭 확장해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암소 바치기』의 지주 라히 샤히브는 많은 투자를 해서 공직을 유지하고자 한다. 『울지 말라, 아이야』의 하우랜즈와 아코보는 위험이 생기자 치안을 담당하는 공직을 맡았다.

부자가 부자만으로 만족하지 않아 공직을 맡고, 부의 원천이 토지에 있다 는 두 가지 사실은 아직 근대사회에 이르지 않은 시기의 특징이다. 근대사회라면 토지가 아닌 자본이 부의 원천이고, 자본가는 공직을 맡을 필요가 없다. 부의 다른 원천은 없고 토지에서 생긴 부가 공직에 수반되는 것이 중세사회의 특징이다. 그런 특징이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네 작품에 함께 나타나는 공통된 사회상이다. 다른 사회상은 모두 아직 근대가 아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는 어디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과 흑』에서 드 레날이 경영하는 못 공장은 동력이 아닌 水力を 사용하는 공장제수공업이다. 작품에서 다른 시기에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암소 바치기』에는 사탕수수를 가공하는 공장이 나오고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금융자본가가 지주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예외적인 현상이고, 농촌은 달라지지 않았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재래의 방식으로 경작을 하며 지주에게 수탈당하고 있었다. 『울지 말라, 아이야』에서는 영국인 하우랜즈가 켄야에 이주해서 공장이 아닌 농장을 경영한다. 공장은 없는 곳이다.

(을)의 인물은 (갑)과는 대조가 되게 가난하고, 수탈당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조성되고,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투쟁의 양상과 방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투쟁을 다루는 작자의 관점에는 더 많은 편차가 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갑)의 인물로 설정한 엄승과 유연수는 서로 다르다고 했다. 최상위의 엄승은 악인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보다 하위의 유연수는 선인이므로 지위를 보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갑)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어 무리하게 누리는가 아니면 정당하게 얻어 도리에 맞

게 누리는가 하는 차이를 크게 확대해서 양극으로 갈라놓았다.

엄승과 유연수의 관계에서는 엄승이 (갑)이고 유연수가 (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연수는 (갑)의 특성을 갖추지 않고 피해자가 되는 데 머물렀다. (을)의 교씨, 동청, 냉진 등은 유연수를 기만해서 파멸시킬 수 있어 가해자가 되었다. 동청이 엄승과 연결되어 유연수를 파멸시키고, 모해자들 사이에도 서로 기만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의 사건을 설정해서 악의 속성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것으로 작품의 핵심 내용을 삼았다.

『사씨남정기』에서 (을)의 주역인 동청은 『적과 흑』(을)의 절리앙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서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 면밀한 계산을 해서 작전을 짜서 한 단계씩 실행했다. 『사씨남정기』에서는 유연수의 첨, 『적과 흑』에서는 드 레날 시장의 부인, 라몰 후작의 딸 같은 (갑)의 여성은 유혹해 정을 통하는 작전을 성공시켜, (갑)에 대한 불만을 보복으로 해소하고, 자기의 위치를 유리하게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발판을 삼았다.

『사씨남정기』에서는 동청은 악인이라고 전제하고 어떤 작전을 짜는가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에만 동청의 내면의식을 보여주고, 『적과 흑』에서는 절리앙을 의식의 중심으로 삼아 작품을 전개해 독자가 절리앙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서술한 관점의 차이이다. 선악의 판단은 배제하고 동청을 중심에다 두고 작품을 다시 쓰면 『사씨남정기』가 『적과 흑』처럼 될 수 있다. 드 레날 시장을 유연수처럼 긍정적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해 『적과 흑』을 『사씨남정기』처럼 개작할 수도 있다.

『암소 바치기』나 『울지 말라, 아이야』에서도 정상을 벗어난 남겨관계가 작품 전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면서, 전개 방향에서는 위의 두 작품과 반대가 된다. 『암소 바치기』의 (을)인 고바르는 자기네보다 지체는 낫고 사는 형편은 나은 목축업자의 딸이 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할 때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고 임신을 시켜 큰 소동이 벌어진 것도 부당한 관습을 타파하는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울지 말라, 아이야』에서 (을)의 은조르게 (갑) 쪽 야코보의 딸 음위하키를 사랑하는 것은 처지의 차이를 넘어서는 데서는 탈선이지만,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며,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작가의 소망을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

(갑)과 (을)의 투쟁을 전개하거나, (을)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데

상례에서 벗어난 남녀관계를 이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다. 중세 도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간통이나 사통이 벌어지고, 신분의 차이가 엄연한 남녀가 함부로 결합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 달라지게 하는 요인임을 잘 알아 작품에서 적극 활용했다. 도덕률도 신분의 차이도 없어지면 인간은 극도로 타락한다는 우려와 그래야만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는가는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해기의 논쟁에 가담한 공통점이 있다.

김만중은 중세작가이고, 스탑달은 근대작가라고 단정하는 것은 둘 사이의 공통점을 무시한 단견이다. 중세인의 명분론 대신에 근대인의 이해관계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이해기의 변화를 그린 공통점이 자리잡은 곳이 그 시초인가 결말인가 하는 차이점 때문에 부인될 수 없다. 지금까지 다른 소설 네 편은 크게 보면 모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해기소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의 기본특징

이상에서 고찰한 바는 네 작품에 공통되지만, 그것으로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삼을 수 없다. 네 작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여러 작품에까지 널리 해당하는 특징을 말하려면 한층 추상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소설을 이루는 내용보다는 소설을 만드는 방법이 추상화된 논의에서는 더욱 긴요하다. 소설의 형성과 변천을 그 내부에서 이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소설이 다른 문학갈래와 어떻게 다른가 밝히는 데 필요한 이론을 마련하는 작업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네 작품은 모두 중세와 근대에 걸쳐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중세의 사정만 취급해서는 소설이 되지 않는다. 근대가 되고서 이루어진 일만으로는 소설을 만들 수 있으므로, 중세와 근대에 걸친 문제를 다루어야 소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복잡한 과정을 실상대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 모두 다면성·총체성·역사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이다.

작품의 실상을 다룰 때 등장인물에 관한 사항, 작품전개 방식에 관한 사

향, 작품세계 내부의 특질에 관한 사항을 살피려고 했다. 그래서 얻은 결과를 (가) · (나) · (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소설이 무엇이며 다른 문학갈래와 어떻게 다른가 판가름할 수 있다.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소설에 여러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우호적 관계에 근거를 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 대결한다. 우호적 관계는 사회적 유대에서 이루어지고, 적대적 관계는 사회적 갈등에서 생긴다. 우호적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작품이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둘 다 있어야 한다. 우호적 관계와 적대적 관계는 따로 놀지 않으며, 표리를 이루기도 하고, 선후로 교체되기도 하는 것이 상례이다.

주인공과 상대역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하지 않다.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고, 때로는 양극단으로 치닫기도 한다. 주인공은 뚜렷하게 확대하고 상대역은 상대적으로 흐리게 하고 축소한 자아 중심의 형태가 한극단을 이루고, 여러 인물이 각기 자기를 자아로 하고 다른 쪽을 세계로 해서 주인공과 상대역의 구분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다른 한극단을 이룬다. 극단은 소설 밖으로 나갈 염려가 있다. 대부분의 소설은 그 중간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갖추고 있다.

(나) 소설은 대화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회곡은 대화만이지만, 소설은 대화와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 '서술'을 '지문'이라고 하면 글의 형태는 분명하지만, 그 기능은 모호하므로, '지문' 대신에 '서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대화만인 회곡에서와는 달리 소설에서는 작품외적 자아가 개입한다. 그 때문에 대화와 서술이 상반될 수 있다.

작품외적 자아가 자기의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해서 서술의 양상이 달라진다. 작품외적 자아가 모습을 숨기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만 드러내 보이는 서술은 묘사이다. 작품외적 자아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서술은 설명이다. 대화와 가까운 거리에 묘사가 있고, 먼 거리에 설명이 있다. 그러나 대화와 상반된 묘사도 있고, 대화로 전개되는 설명도 있다.

(다) 소설은 의식과 상황의 관계를 문제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의식과 상황은 내면과 외면이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여러 이유에서 서로 어긋난다. 다른 서사문학에서는 의식과 상황이 일시적으로 상반되어도 일치되는 상태로 되돌아가서, 사건의 진행이나 결말이 소설의 경우보다 선명하다. 소설에서는 의식과 상황이 상반되는 것 자체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그 때문에 승패가 나누어진 뒤에도 문제가 계속 남는다.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자아가 처참하게 패배하면서도 자아는 상황과 어긋난 의식을 지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자아와 세계의 상호우위가 파괴되지 않는다. 상황에서는 자아가 승리했지만, 자아의 의식은 오히려 자기가 패배했다고 여겨 자아와 세계의 상호우위가 지속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소설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이루어져 그 시대의 총체적인 성격을 작품의 다면적인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해서 생겼다.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있는 문제를 (가) · (나) · (다)의 특징이 하나로 얹혀 있는 방식으로 다루어 소설을 이루했다. 이미 고찰한 바를 다시 간추리면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가)에서 사회모순을 문제삼고, (나)에서 윤리에 관한 논란을 벌이고, (다)에서 심리문제가 복잡하게 얹힌 세 가지 특징이 합쳐져서 소설의 총체성을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작품구조가 다면적으로 긴장되고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총체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야 소설다운 소설이 된다.

(가) · (나) · (다)의 특성을 각기 두드러지게 나타낸 사회소설 · 윤리소설 · 심리소설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복합되어 있다. 그 셋 가운데 어느 것이 다른 둘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확대되면 소설의 총체성이 파괴된다. 주제의식을 앞세우거나 별난 소설을 쓰려고 하면 그런 일탈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소설에 이르러서 나타난 변화이다.

이상의 결과는 필자가 정립한 기존의 소설과 상당한 부분 합치된다.⁷⁸⁾ 그러나 그 점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도달점이 아니다. 필자의 소설론도

78) 소설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한국소설의 이론』(서울 : 지식산업사, 1977)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서울 : 지식산업사, 제2판 1992)의 「한국 · 중국 · 일본 소설의 개념」, 「서사시의 전통과 근대소설」에서 전개했다.

다른 여러 이론과 함께 장차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이 연구는 세계문학사의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의 하나로 소설사를 다루는 방대한 작업의 서장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 내용은 세계소설사의 전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면서, 소설사와 사회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설의 사회사비교론은 세계문학사 이해의 이론을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 가운데 아홉번째 것에 해당한다.⁷⁹⁾

79) 그 목록을 들면, (1)『세계문학사의 허설』(지식산업사, 1996); (2)『인문학문의 사명』(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3)『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지식산업사, 1997); (4)『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 (5)『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지식산업사, 1999); (6)『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지식산업사, 1999); (7)『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지식산업사, 1999); (8)『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지식산업사, 2000); (9)『소설의 사회사 비교론』(2001); (10)『세계문학사의 전개』(2002); (11)『세계문학사 연구총서 총색인』(2003)이다. 이 논문은 그 가운데 (9)의 서장 부분이다.